

문 윤 경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로코코 시대의 예술양식을 응용한
네일아트 디자인 연구

2014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디자인예술대학원

융합디자인예술학과 메이크업 · 특수분장 전공

조 한 솔

로코코 시대의 예술양식을 응용한
네일아트 디자인 연구

문 윤 경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디자인예술대학원
융합디자인예술학과 메이크업 · 특수분장 전공

조 한 솔

인 준 서

조한솔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디자인예술대학원

논문개요

네일아트는 네일 관리와 달리 손톱 표면을 아름답게 꾸며주는 장식적 요소가 강한 분야이다. 자신의 개성을 자유롭게 표출하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네일아트는 뷰티 산업의 핵심 분야로서 확실한 영역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현재 네일 미용 산업의 큰 발전과 더불어 다양한 네일 재료의 출시와 대중매체를 통하여 전파되는 새로운 트렌드에 맞춰 끊임없이 디자인 창작과 기술 개발이 중요시되고 있으나 네일 아티스트들에게는 그 부분이 미흡한 부분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디자인의 모티브가 다양하였던 시대적 예술 양식과의 접목과 이를 응용한 네일아트 디자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는 섬세하고 화려한 장식적 요소가 절정에 달한 로코코 시대의 시대적 예술 양식을 고찰하고 현대적으로 접목하여 다양한 네일 디자인 작품을 제시하고자 한다. 18세기 로코코 시대는 화려함과 정교함의 정점을 이룬 시대로서, 여성스러움과 곡선의 아름다움이 대표적인 시대이다. 그동안 로코코 양식에 관련한 미용 연구 논문들이 복식, 헤어, 메이크업에 중점을 맞춘 연구가 대부분이고 네일아트와 접목된 연구사례가 극히 적음으로 인해 살롱웍과 대회 작품 등 여러 분야에 응용되며 기술 교류 및 현대 흐름에 접목할 수 있는 로코코 스타일의 네일아트 디자인을 제안하여 네일아트 디자인 분야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하며, 창의적인 발상 및 표현 방법에 활용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

로코코 양식을 응용한 네일아트 디자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작품 I 은 로코코 양식의 회화 작품에서 페트갈랑트 화풍을 응용한 작품으로 핸드페인팅, 엠보 기법, 3D 기법을 사용해서 표현하였다.

작품 II는 로코코 양식의 실내장식에서 실내 벽면을 모티브로 한 작품으로

마블, 엠보 기법을 사용해서 표현하였다.

작품 III과 IV는 로코코의 실내장식 중 가구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마케트리 가공방식을 응용한 작품으로 주로 핸드페인팅 기법을 사용하여 표현하였다.

작품 V는 로코코의 실내장식 중 의자의 캐브리올 다리를 모티브로 하여 엠보 기법을 사용해 표현하였다.

작품 VI과 VII은 로코코의 문양 중 베랑이 문양을 응용한 작품으로 프로그래밍 기법을 사용하였고, 인조보석 및 데칼을 이용하여 장식하였다.

작품 VIII은 로코코 시대의 직물 문양 중 꽃과 나뭇잎, 줄기 등을 응용한 작품으로 데칼과 인조보석 및 파츠로 장식하여 표현하였다.

작품 IX는 마리 앙투아네트의 직물 문양을 응용한 작품으로 핸드페인팅 기법으로 표현하였다.

작품 X은 로코코 시대의 자수를 모티브로 한 작품으로 핸드페인팅 기법과 인조 보석으로 표현하였다.

작품 XI은 로코코 시대의 앞 코가 뾰족한 구두인 톱업포인트 토슈즈 모습을 형상화 한 작품으로 익스텐션 기법과 핸드페인팅을 이용하여 표현하였다.

작품 XII는 샤를 크레성의 브론즈 장식인 에스파놀레트를 응용한 작품으로 엠보 기법, 3D 기법을 통해 표현하였다.

작품 XIII은 벽에 고정시켜 놓는 촛대인 아플리크의 일부분을 형상화한 작품으로 엠보 기법으로 조형하였다.

작품 XIV는 로코코 시대의 마이센 자기를 응용한 작품으로 핸드페인팅으로 표현하였다.

작품 XV는 로코코 주얼리 중 부케 형태를 응용하였고, 작품 XVI은 로코코 주얼리의 디자인 형태 중 지아르디네띠를 모티브로 한 작품이고, 작품 XVII은 로코코 주얼리의 형태 중 지랑돌을 모티브로 한 작품으로 세 작품 모두

라인스톤 기법을 사용하여 표현하였다.

본 연구는 로코코 양식의 특징이 네일아트 디자인의 모티브로 접목할 수 있음을 알아보고 대중성이 강한 살롱형 네일아트와 예술성이 강한 작품형 네일아트 모두에 적용할 수 있는 네일아트 디자인으로 연구 및 전개하였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 론	1
II. 이론적 배경	5
1. 로코코 시대의 예술양식	9
2. 네일아트의 표현방법	34
III. 작품 제작	46
1. 디자인의도 및 제작방법	46
2. 작품 및 설명	51
IV. 결 론	85

참고문헌

ABSTRACT

표 목 차

<표 1> 네일아트 재료	35
<표 2> 작품 계획도	48

그림 목 차

<그림 1> 키테라 섬의 순례	12
<그림 2> 로코코 시대의 실내장식 I	14
<그림 3> 로코코 시대의 실내장식 II	14
<그림 4> 벽난로 스타일	15
<그림 5> 마케트리 기법의 가구	16
<그림 6> 포테이 의자	18
<그림 7> 베르제르 의자	18
<그림 8> 베랑의 문양	19
<그림 9> 18세기 다양한 직물 문양	20
<그림 10> 마리 앙투아네트의 직물 문양	21
<그림 11> 로코코 시대 남성 복식	21
<그림 12> 로코코 시대 스토마커	22
<그림 13> 로코코 시대 구두	22
<그림 14> 시누아즈리 디자인의 벽장식	23
<그림 15> 에스파놀레트	24
<그림 16> 청동 장식 가구	24
<그림 17> 로코코 시대의 벽면 및 가구 장식	25
<그림 18> 로코코 장식의 촛대	26
<그림 19> 로코코 장식의 벽시계	26
<그림 20> 로코코 장식의 탁상시계	26
<그림 21> 동서 퓨전자기	27
<그림 22> 마이센 자기	27
<그림 23> 핑크색 세브르 도자기	28

<그림 24> 마담 풍파두르	29
<그림 25> 로코코 헤어스타일	30
<그림 26> 부케 주얼리	31
<그림 27> 지아르디네티 반지	31
<그림 28> 지랑돌 목걸이	32
<그림 29> 리본 매듭 형태의 주얼리-클로즈드 백 기법	33
<그림 30> 페이스트로 된 브로치와 구두 버클	33
<그림 31> 원톤 스카췌	38
<그림 32> 투톤 스카췌	38
<그림 33> 디자인 스카췌	38
<그림 34> 다양한 프렌치 모양의 응용	39
<그림 35> 타일 아트	40
<그림 36> 마블 아트	40
<그림 37> 핸드페인팅 아트	41
<그림 38> 포크 아트	41
<그림 39> 에어브러쉬 아트	42
<그림 40> 프로트렌스 아트	42
<그림 41> 엠보 아트	43
<그림 42> 3D 아트	45
<그림 43> 믹스미디어 아트	45
<그림 44> 라인스톤 아트	45
<그림 45> 작품 I	52
<그림 46> 작품 II	54
<그림 47> 작품 III	56
<그림 48> 작품 IV	58
<그림 49> 작품 V	60

<그림 50> 작품 VI	62
<그림 51> 작품 VII	64
<그림 52> 작품 VIII	66
<그림 53> 작품 IX	68
<그림 54> 작품 X	70
<그림 55> 작품 XI	72
<그림 56> 작품 XII	74
<그림 57> 작품 XIII	76
<그림 58> 작품 XIV	78
<그림 59> 작품 XV	80
<그림 60> 작품 XVI	82
<그림 61> 작품 XVII	84

I. 서론

미용산업은 미(美)를 추구하는 인간의 욕구에 맞추어 끊임없이 전문화되고, 세분화하여 발전하고 있다. 헤어, 메이크업, 피부 분야에 비하여 우리나라에 도입 시기가 상대적으로 늦은 네일 분야는 미용 산업의 흐름에 있어서 후발 주자처럼 인식되었으나, 1990년대 중·후반을 기점으로 도입한 이후, 서비스 산업의 발달과 함께 빠른 성장을 이루며 발전하고 있다. 또한, 네일아트는 현대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와 자신의 개성을 자유롭게 표출하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대중화를 이끌어내며 뷰티 산업의 핵심 분야로 자리매김하였다¹⁾.

이러한 네일 미용 분야의 움직임은 기존의 네일 폴리쉬(nail polish) 컬러 시대에서 U.V 젤(gel) 네일 시대로 변화할 만큼 네일아트 제품과 재료를 더욱 발전시켜 왔고, 더 나아가 네일 폴리쉬를 젤 네일처럼 바를 수 있는 폴리젤(poligel)까지 출시가 되어 네일 제품 시장의 폭이 끊임없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네일아트의 제품에 대한 인식 또한 대중화 되어 뷰티 전문샵이나 브랜드샵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고, 전문 판매점에서만 구입할 수 있었던 젤 네일 제품도 홈쇼핑이나 로드샵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21세기 뷰티 산업에서, 네일아트는 더이상 일부 사람들만 특권으로 즐기는 영역이 아닌 대중들에게 친숙한 영역으로 가깝게 다가와 있다. 이에 따라, 네일아트 분야의 확대와 제품 시장의 발달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문화된 네일 아티스트를 필요로 하게 되었고, 새로운 제품 및 재료의 출시는 고객들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네일 아티스트들의 계속된 기술 연마와 예술 감각을 동반하게 되어 네일 살롱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이어가는 밑거름

1) 뉴미디어국, '네일아트 창업, 안정적 인력수급이 성공관건', 매일신문, 2011. 10. 25.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60983&yy=2011,
검색일자: 2013.06.13.)

이 되었다.

한국 네일 산업은 대중적이고 보편화된 살롱웍(Salon work)에 머물지 않고, 국내·외 크고 작은 네일아트 대회를 통하여 서로의 기술을 공유하고 작품 전시를 통한 예술 교류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2012년에는 네일 아트의 올림픽으로 불리는 ‘네일림픽스(Nailympics Competition)’ 아시아 권 대회가 최초로 한국에서 개최되었다. '2012 네일림픽스 아시아'의 개최 기념으로 한국에 방한한 네일림픽스 설립자이자 국제심사위원장인 리사 컴퍼트(Lisa Comfort)는 인터뷰에서, “네일은 기술이 빠르게 전파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창의성이 네일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동안 한국의 재능있는 네일 아티스트들이 보여준 획기적인 기술이 네일 업계의 아트 개념을 크게 뒤바꾸었고 이들이 하나의 전환점이 돼 산업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다”²⁾고 하였다.

국제적으로 한국 네일 아티스트들의 위상이 높아짐으로써 대중매체를 통하여 전파되는 새로운 트렌드에 맞춰 끊임없이 디자인 창작과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시 되고 있다. 그러나 네일 아티스트들에게는 그 부분이 한계점으로 다가오고 있다. 새로운 모티브를 찾아 적용하기보다는 기존 디자인의 형식화된 변형 및 반복으로 네일 디자인의 다양성 부족과 바빠진 사회 구조 속에서 짧은 시술 시간을 강조하며 디자인을 점점 간소화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네일아트 소재의 다양성 부족과 디자인의 간소화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디자인의 모티브가 다양하였던 시대적 예술 양식의 접목과 이를 응용한 네일아트 디자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섬세하고 화려한 장식적 요소가 절정에 달한 로코코 시대를 선정하여 시대적 예술 양식을 고찰하고 현대적으로 접목하여 다양한 네일 디자인 작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김재련, “리사 컴퍼트(Lisa Comfort) 인터뷰”, 뷰티누리, 2012. 05. 10.
(<http://www.beautynury.com/news/view.asp?idx=50890&whr=&keyword=§ion=people&searchcategory=&mode=main&boundary=part&ptype=simle&page=1>, 검색일자: 2013.06.13.)

18세기의 로코코 스타일(Rococo Style)은 무겁고 웅장한 권위적인 바로크 스타일을 지나 화려함과 정교함의 정점을 이루었다. 여성스러움과 곡선의 아름다움이 가장 잘 묻어나는 대표적인 시대로도 손꼽을 수 있어 빠른 유행의 흐름과 미(美)에 대한 인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현대 사회에 맞물려 패션 및 패션쇼, 메이크업, 광고, 잡지 화보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응용되고 있다. 아기자기한 로코코 시대의 세밀한 실내장식과 문양, 오브제를 이용한 문화는 현대의 네일아트와 유사한 점이 많아 다양한 네일아트 디자인으로 접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네일살롱의 주 고객층인 여성들에게 화려하고 여성스러운 디자인을 제안함으로써 새로운 네일 디자인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한다. 또한, 네일 아티스트들에게 네일아트의 예술 분야인 믹스미디어 네일 디자인, 3D 네일 디자인, 리빙 아트 등의 창의적인 발상 및 표현 방법에 활용되는 기초자료가 되는데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 그동안 18세기나 로코코 시대에 관련한 미용 연구 논문들이 복식, 헤어, 메이크업에 중점을 맞춘 연구가 대부분이고 네일아트와 접목된 연구사례가 극히 적음으로 살롱웍과 대회 작품 등 여러 분야에 응용될 수 있는 기술 교류 및 현대 흐름에 접목할 수 있는 로코코 네일 디자인을 제안하여 네일 디자인 연구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로코코의 시대적 배경과 특징을 국내·외 서적 및 학위 논문을 통하여 고찰한다.

둘째, 문헌의 사진과 그림을 통하여 로코코 시대의 예술 양식을 회화, 실내장식, 문양, 오브제, 주얼리로 나누어 세부적으로 살펴본다.

셋째, 네일아트의 재료에 대하여 조사하고 네일 표현 기법을 분석한다.

넷째, 이론적 고찰과 서적 자료를 통하여 분석한 로코코 시대의 예술 양식을 바탕으로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새로운 로코코 스타일의 네일 디자인을 제안하고 작품으로 제작한다.

연구의 범위는 루이 14세(Louis XIV, 1638~1715)가 생을 마감하고 필립 오를레앙 공(Philippe d' Orleans, 1674~1723)의 섭정 기간의 시작인 1715년부터 프랑스 혁명 이전의 1780년까지를 중심으로 회화, 실내장식, 문양, 오브제, 주얼리로 구분하고 로코코 시대의 장식요소들을 접목한 디자인으로 제작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로코코 시대의 예술양식

1) 로코코시대의 사회·문화적 배경

로코코 시대는 프랑스 역사상 가장 호화스럽고 화려했던 시기로, 72년간 절대적인 권력으로 프랑스를 통치한 태양왕 루이 14세가 생을 마감한 1715년을 기점으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로 구분한다.

막강한 왕권을 군림하던 태양왕의 중압감에서 벗어난 사회는 새로운 시대를 갈망하였다. 절대왕제의 딱딱한 틀이 부드러워짐과 함께 귀족사회는 서서히 몰락해 가고 문화양식에도 변모가 보이기 시작하였다. 프랑스 사회는 이제까지의 형식적이고 엄격한 규칙을 버리고 감성적이며 쾌락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인간에게 내재하고 있던 이러한 감정이 새로운 예술 양식을 형성하는데 절대적인 요소가 되었다³⁾.

이 시기에 인간 내면감정의 욕구를 모든 영역에서 나타낼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 것은 필립 오를레앙 공이다. 루이 14세가 서거한 후, 그 뒤를 이을 아들이나 손자는 없었고 5살 밖에 안 된 증손자인 어린 루이 15세가 왕위를 계승하였다. 그러나 어린 왕세자의 통치는 불가능했기에 루이 14세의 조카이자 루이 15세의 숙부인 필립 오를레앙 공이 섭정을 맡아 통치하였다. 그때 필립의 나이는 42세로, 머리가 좋고 말도 잘했을 뿐만 아니라 통찰력이 뛰어나고 사람들로 부터 호감을 받는 인물이었다. 음악, 미술, 자연과학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었고 사고방식도 자유분방하고 향락적인 취향이 있었다⁴⁾. 필립 오를레앙 공의 섭정 기간은 8년뿐이었지만 이 시기에 프랑스에

3) 정홍숙(1997), 서양복식문화사, 서울: 교문사, p.234.

4) 베니아마, 서상원 역(2006), 유럽에 빠지는 즐거운 유희1-신화와 역사편, 서울: 스타북스, p.163.

서 일어난 변화는 몇십 년에 걸쳐 일어난 것과 같은 엄청난 것이었다⁵⁾. 오를레앙 공은 루이 14세와의 상반된 정치방식으로 로코코 시대의 양식이 급속도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던 유능한 사람이었지만 구제 불능일 정도로 게으른 사람이었다. 도덕과 예의범절은 방탕, 부패, 악정, 너절함으로 곤두박질쳤으며⁶⁾ 무리한 전쟁으로 국가 재정에 위기를 몰고 오게 된다. 엄격한 규범과 신분 때문에 궁정 사회를 누릴 수 없었던 부르주아 세력들⁷⁾에게는 섭정기가 환영받았을지 모르나 새로운 세상을 기대했던 시민들에게는 실망감과 불신만 키우게 되었다⁸⁾.

섭정기가 지나고, 성년이 된 루이 15세가 친정을 시작한 로코코 중기는 사실 1745년부터 루이 15세가 사망할 1764년까지 실제로 궁정의 대소사를 좌우한 것은 왕의 애첩인 풍파두르 부인(Madame de Pompadour, 1721~1764)이었다⁹⁾.

왕을 움직이고 싶어 하는 한 정치인에 의하여 훈련받은 시민 출신의 후궁인 풍파두르 부인은 20여 년 동안 루이 15세와 프랑스 정치를 좌우하였다. 그녀는 계몽사상가들을 후원하였고, 정부 고관의 임명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¹⁰⁾. 풍파두르 부인의 살롱은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하였고, 자유주의 계몽사상을 전국에 보급시키는 진원지 역할을 하였으며 당대의 이름난 학자들이 출입할 정도로 매우 정치적인 살롱으로 이용되었다¹¹⁾. 루이 15세의 시기는 지나친 애첩들의 정치 개입으로 불안한 재정을 이어나갔고, 풍파두르 부인 외 또다른 애첩인 뒤바리 부인(Madame du Barry, 1743~

5) 이지은(2006), 귀족의 은밀한 사생활, 서울: 지안, p.141.

6) 자크 바전, 이희재 역(2006), 새벽에서 황혼까지 1500-2000 1, 서울: 민음사, p.584.

7) 이나경(2013), "로코코 시대 헤어스타일의 조형적 특성을 응용한 현대 업스타일 디자인 연구",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5.

8) 조정문(2006), "로코코시대 여성복식을 응용한 의상디자인연구: 디테일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4.

9) 김시아(2010), "로코코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의상 연구: 「마리 앙투아네트」와 「공작부인」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아트퓨전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4.

10) 윤선자(2006), 이야기 프랑스사, 서울: 청아출판사, pp.249~250.

11) Ibid., p.263.

1793)도 정치에 손을 뻗게 되면서 사치는 더 크게 계속되었다. 궁정의 위신과 국가의 재정 상태는 점점 바닥을 향해 악화되어 국민들의 원성은 날이 갈수록 더해갔다.

후기의 로코코 시대는 루이 16세의 즉위로 반등을 시도하였으나 정치에 무관심하고 무능력하여 프랑스가 처한 난관을 해결하기에 역부족이었으며, 재정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좌절되었다.

루이 16세와 결혼한 오스트리아의 여제 마리아 테레지아(Maria Theresia, 1717~1780)의 딸, 마리 앙투아네트(Marie Antoinette, 1755~1793) 역시 그런 국왕을 내조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그녀는 허영과 사치의 표본으로 온갖 구설수의 주인공이 되었으며 루이 15세의 정부 풍파두르처럼 매일 연회를 열고 자신의 치장에만 한껏 신경을 쓰는 등 끝없는 사치를 하여 프랑스 왕국이 결국 파산을 하게 만들기도 하였다¹²⁾.

루이 14세 때부터 증가한 채무로 위기를 맞이했던 프랑스는 루이 15세의 무관심으로 더욱 악화되었고, 마리 앙투아네트의 엄청난 사치와 루이 16세의 방관으로 국가의 재정은 끝을 향하게 되었다. 이러한 궁정의 붕괴로 루이 16세와 그의 부인 마리 앙투아네트가 함께 처형당하게 되면서 프랑스 사회는 ‘프랑스 대혁명’이라는 시민혁명을 맞이하게 되었다¹³⁾.

로코코 시대의 문화적인 특징은 ‘살롱문화’를 들 수 있다. 원래 살롱이란 말은 둥근 방에 천장이 돔 형태로 된 공간을 가르키는 건축용어였으나 18세기에 들어서면서 살롱이란 단어에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사교적 의미가 추가되었다. 주로 아름다운 여주인이 자기 집 응접실을 개방하여 예술가나 철학자, 학자를 초대하여 담소를 나누는 모임을 뜻하였다¹⁴⁾.

살롱은 여주인 중심으로 이루어져, 여주인의 성향에 따라 드나드는 사람의

12) 이지현(2006), "로코코 시대의 장식요소를 응용한 의상디자인", 한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6.

13) 한원영(2010), "로코코 시대 인물화에 나타난 메이크업 특성과 색채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6.

14) 이지은(2006), op. cit., pp.197~198.

부류와 살롱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결정되었다. 로코코 시대의 살롱은 사회, 과학, 철학, 경제, 종교 등을 주제로 토론하는 사교적 집회¹⁵⁾로서의 모습도 있었지만, 이완된 분위기와 향락적인 우아함에 가득 찬 자유분방한 편안함도 곁들여져 있었다. 남자들도 출입은 하였지만 살롱은 사교계 여성들의 동경의 장소이자 또한 과시의 장소이기도 하였으며 유행을 주도하는 곳이기도 하였다. 로코코 양식이 가장 잘 나타나는 곳도 역시 살롱으로 이 생활공간 안에 배치되어 있는 모든 것은 화려하고 섬세하며 몸치장과 패션의 유행도 만들어가는 문화 살롱이 되었다¹⁶⁾.

그들의 살롱문화가 성행하여 자리를 잡을수록 생활양식 또한 점점 더 변하였고 자연스럽게 복식에도 다양한 변화를 가져온 것이다. 이 시기의 복식이 그토록 화려할 수 있었던 데에는 당대의 직물공업을 주로 한 산업발전의 힘이 크다. 영국에서의 산업혁명은 18세기의 가장 획기적인 현상 중의 하나로 근대복식의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으며 기계발명으로부터 시작되었다¹⁷⁾. 산업혁명으로 루프와 리본 직기의 자동화, 레이스 직조 방법의 개량, 편성기의 개량, 인쇄기술의 발달 등 기계발달과 함께 중앙아시아 및 극동아시아와의 활발한 교역, 다양한 직물을 프랑스에 소개함으로써 18세기 전반에 걸쳐 사용되었다¹⁸⁾.

프랑스의 귀부인들은 화려함에 빠져 공들여 화장을 하고 정성들인 의상을 차려 입고 자신을 마치 살아있는 예술품으로 만들어 놓는 것을 즐겼다. 학문을 익히는 것보다 문화적으로 세련된 감각이 무엇보다도 중요시 되었으며 따라서 의상과 옷맵시, 화장, 머리형, 장신구, 몸짓 등에 대해 더욱 정성 드리게 되었다¹⁹⁾.

15) 오광수(1996), 이야기 서양미술 서양미술이야기, 서울: 정우사, p.185.

16) 김석희(2008), 번역가의 서재, 서울: 한길사, p.289.

17) 한순자 외 2명(2001), 서양복식문화사, 서울: 예학사, p.100.

18) 한지선(2012), “18세기 로코코 시대의 여성 미용문화 분석을 통한 미용작품 연구”, 성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4.

19) 정홍숙(1997), op. cit., p.238.

그동안 바로크 시대 때 누르고 있던 무거움과 웅장함이 보다 가벼워진 로코코 시대로 접어들면서 프랑스의 귀족문화는 쾌락으로 사치를 즐기고 장식과 치장이 최고조에 달하는 장식예술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또한 예술을 포함한 모든 분야가 여성이 주(主)가 되는 살롱문화를 중심으로 발전하게 되어 18세기 로코코 양식은 유럽 전역에 문화적으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²⁰⁾.

2) 로코코 예술양식

로코코 시대의 초기인 오를레앙 공의 섭정기를 시작으로 18세기의 가장 대표적인 예술양식으로 자리 잡은 것은 로코코 양식이다. 어둡고 웅장한 바로크 양식의 반대되는 분위기로 가볍고 섬세하며 시각적으로 화려한 세련미가 특징이다. 로코코 양식은 아주 작은 것부터 친숙한 생활 영역까지 아기자기하게 꾸미는 실내 장식에 두드러진 면을 보인다. 17세기의 바로크 양식이 딱딱하고 무거운 남성미를 많이 띄었다면, 18세기의 로코코 양식은 부드럽고 섬세한 여성미를 보여준다²¹⁾.

로코코라는 양식명의 어원은 프랑스어의 로카이유(rocaille)와 꼬끼유(coquille)에서 유래되었다. 로카이유란 프랑스어로 로크(rock)의 축소어로 작은 돌, 자갈이라는 뜻이다²²⁾. 르네상스 시대부터 왕후의 정원에 그룻토(grotto)²³⁾를 만드는 것이 유행하기 시작하였는데 로카이유란 그 그룻토의 내장에 자주 쓰였던 자갈이나 조개껍질을 뜻한다. 시대가 바뀔에 따라 로카이유는 그룻토에서 벗어나 실내의 벽면 장식에 이용되기에 이르렀고, 기존의 그룻토와는 다르게 조개껍질과 해초를 뒤섞어 놓은 듯한 환상적인 모양

20) 조정문(2006), *op. cit.*, p.8.

21) 김영숙(2007), *루브르와 오르세의 명화 산책*, 서울: 마로니에북스, p.88.

22) 한순자 외 2명, *op. cit.*, p.100.

23) 그룻토(grotto) - 이탈리아어로 동굴을 의미. 정원 관계용어로는 인공 동굴 내지는 동굴 같은 방을 뜻함. (베니아마, 서상원 역(2006), *유럽에 빠지는 즐거운 유흥1-신화와 역사편*, p.160.)

을 벽에 시공한 것이 바로 로카이유 무늬이다. 로카이유 무늬는 정해진 틀이 없이 불규칙한 곡선이 주를 이루며 벽면, 문 등의 장식에 흔히 사용되었고, 이렇게 곡선적인 로카이유 무늬를 애용한 것에서부터 로코코 양식의 시초를 찾을 수 있다²⁴⁾.

이 곡선의 감각은 잔잔히 흐르는 듯 경쾌히 춤추는 듯한 선 감각으로서 우아하고 여성적인 것이며, 귀족적이고 반자연적이며 인공적이고 실내적인 특색을 지닌다. 즉, 리드미컬한 곡선이 주제를 이루며 밝고 화려하고 세련된 귀족취미를 바탕으로 하였다. 따라서 로코코는 외형상의 양식이기보다는 장식의 개념에 치중한 예술양식으로 볼 수 있다. 로코코의 예술양식은 먼저 프랑스의 살롱을 중심으로 하여 번져나가 장식미술에 로코코 양식을 나타나게 했다. 꽃, 리본, 레이스, 루프, 꽃바구니 등의 유연한 모티브가 기묘하게 어우러져 모든 생활공간에 표현되었다. 그 중 벽면장식, 직물의 문양, 의상 장식에는 특별히 세련된 곡선의 감각이 전개되었다²⁵⁾.

(1) 회화

로코코 시대의 회화는 현실에 초점을 맞추며 개인의 감정표현과 행복, 쾌락 혹은 향락이 묻어나는 예술이다. 18세기 초, 미술활동의 무대는 여전히 교회와 왕실이었지만 중상주의 정책의 결과로 부르주아 계급이 등장하면서 살롱이 미술 활동의 새로운 중심 무대로 등장하였다. 부르주아 계급은 이전의 바로크 미술의 목직함보다는 감성적인 표현과 관능적인 정서를 추구하였다. 이러한 18세기 초 자유스럽고 향락적인 인간 감정이 존중되기 시작한 풍토 속에서 만들어진 미술을 로코코 미술(Rococo Art)이라고 부른다²⁶⁾.

로코코 미술은 프랑스 회화가 종교적인 소재에서 벗어나 특유의 경쾌함과

24) 베니야마, 서상원 역(2006), op. cit., pp.160~161.

25) 정홍숙(1997), op. cit., pp.235~236.

26) 박우찬(2004), 환권으로 읽는 청소년 서양 미술사, 서울: 이룸, p.87.

우아함으로 현실생활을 반영할 수 있도록 도운 결정적 계기가 되었고, 부르주아 계급의 번창은 로코코 예술의 형성 및 발전에 밑거름이 되어주었다²⁷⁾. 18세기에 이르러 회화가 궁정 예술이 아닌 사회적 예술이 되자 미술시장의 상황은 변화하였다²⁸⁾.

이러한 미술계의 분위기 속에서 등장한 사람이 바로 로코코 회화의 대표적 화가로 손꼽히는 장 앙투안 와토(Jean Antonie Watteau, 1684~1721)이다. 페트 갈랑트(Fate galantes), 즉 ‘우아한 축제’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로코코의 서막을 연 와토는 전형적인 귀족풍의 그림들을 그렸다. 공원풍의 배경에서 희극 배우와 재미있게 노는 젊은 귀족들이 그가 그린 그림들의 주요 소재가 되었다. 그는 밝고 우아하며 관능적인 사람들의 모습을 담은 그림들을 그려 로코코 회화 특유의 정서를 확립했다²⁹⁾. 와토의 그림은 로코코 회화의 선구자 역할을 하며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재현해낸 화풍으로 오늘날까지 로코코 시대의 관한 연구에 기반이 되고 있다. 그의 회화적 특징이 가장 잘 나타난 작품으로는 1717년 프랑스 왕립아카데미에 회원자격을 위해 출품한 <그림1>의 ‘키테라 섬의 순례’이다³⁰⁾.

이후 와토의 페트 갈랑트 화풍의 영향을 받은 화가들 중에서도 프랑수아 부셰(Francois Boucher, 1703~1770)와 그의 제자 장 오노레 프라고나르(Jean-Honore Fragonard, 1732~1806)가 로코코 회화의 대표화가로 부상하게 되었다.

부셰는 프랑스 왕궁의 총애를 받았으며 특히 루이 15세의 정부 마담 폰파두르의 눈에 들었다. 궁정의 심미관에 부합하기 위해 신화와 여성을 테마로 한 작품 외에도 궁정 인물의 초상화를 많이 그렸는데 ‘마담 드 폰파두르’가 대표작이다. 화려한 색깔, 특히 장미색과 하늘색을 주로 사용하였고 섬세

27) 바이잉, 한혜성 역(2008), 지도로 보는 세계 미술사, 서울: 시그마북스, pp.179~180.

28) 이나경(2013), op. cit., p.10.

29) 윤현주(2008), 젊음을 위한 교양 지식 갤러리, 서울: 스타북스, p.112.

30) 박제(2011), 오후 네 시의 루브르, 서울: 이숲, p.286.

하고도 부드러운 붓 터치를 통해 화사한 장식효과의 극치를 추구했다. 부세가 그린 풍과두르 초상화를 보면 마담 풍과두르를 마치 한 송이 꽃처럼 산뜻하고 아름다운 색채로 풍만하게 표현되었는데 작품 전체에서 화려함과 존경심을 읽을 수 있다³¹⁾.

프라고나르의 ‘그네’ 라는 작품은 당시 귀족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은밀하고 퇴폐적인 풍류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며 유혹적이고 에로틱 성향을 담고 있다. 그네를 타고 있는 여성의 사치스러운 의상과 귀족적 자태만으로 그 시대의 화려한 색채와 세련미를 찾아볼 수 있다.

와토, 부세, 프라고나르를 포함한 이 외에도 많은 로코코 시대의 화가들이 있었고 대부분의 로코코 미술에서는 장식이 화려하고 유혹적인 자태를 풍기는 관능적인 여성 혹은 연애를 주제로 한 그림이 많았다. 감성적이고 쾌락의 문화를 섬세하게 그려내는 것이 로코코 회화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림 1> 키테라섬의 순례 (1717)

(제르맹 바쟁, 김미정 역(1998), 바로크와 로코코, p.184.)

31) 바이잉, 한혜성 역(2008), op. cit., p.182.

(2) 실내장식

로코코의 실내장식은 섭정기를 맞이하여 가장 눈에 띄게 발전하였다. 루이 14세의 장엄하고 형식적인 스타일을 비웃기라도 하듯 필립 오를레앙 공은 섭정을 시작하며 자신의 거처를 베르사유 궁전이 아닌 파리의 시내로 옮겼다. 자유로운 사고방식을 추구하는 필립은 웅장하게 꾸며진 궁전보다 본인의 취향으로 이루어진 저택에서 정무를 보며 실내장식의 발전에 시작을 알렸다. 이후 파리는 자유롭고 유동적인 도시적 스타일을 대변하는 곳이 되었고³²⁾, 화려하게 꾸민 각자의 공간을 활용한 살롱문화가 확산되면서 외관에만 치중하던 예술양식이 실내장식에 비중을 두게 되었다.

건축의 외형에는 두드러진 로코코양식을 찾기 어렵고, 쾌락을 추구하며 사치로 만족감을 얻으려 하는 귀족들과 부르주아 계층들에게 더 이상 크고 무거운 건축물은 관심 밖이었다. 바로크 양식이 왕의 위엄을 과시하는 절대왕정의 표현이었다면 로코코 양식은 개인의 생활과 안락 특히 여인들을 위한 감성적이고 섬세함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다³³⁾. 살롱의 유행으로 당시 여자들의 정치, 문학, 사회활동의 참여가 높아지고 사치와 향락에 도취되는 감상적인 흐름이 일자 실내장식도 이러한 경향을 따르게 되었다³⁴⁾.

로코코 양식도 실내장식에서 가장 섬세한 매력을 보여주었고 가장 분명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사람들은 예술을 요구하여,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일용품까지 예술품으로 만들었다. 사적 공간의 치장과 설비에서 이제까지의 예술이 이를 수 없었던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다. 아주 작은 일상적인 종이 한 장에 이르기까지 예술적으로 만들어졌으며 지나칠 정도로 금색과 은색을 여러 가지로 다르게 하여 은은하게 보이게 할 줄 알았으며, 새로운 재료에서 새로운 매력을 발견할 줄 알았다³⁵⁾.

32) 홍지연(2006), 시간이 만든 빛의 유혹-엔틱 주얼리, 서울: 수막새, p.21.

33) 오혜경(1992), 실내장식의 변천사, 서울: 국제, p.22.

34) 이연숙(1998), 실내디자인양식사,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p.87.

또 다른 특징으로는 각이 생기지 않도록 즉 모서리가 지지 않게 하는 것이다. 기둥, 대들보, 문틀, 창틀을 의식적으로 없애고 평편한 평면으로 마무리하였지만 이들은 건축구조에서 꼭 필요한 것이므로 벽이나 천장에 메워 넣어 눈에 잘 띄지 않게 하였다³⁶⁾.

전체적인 실내의 분위기는 직선이 사라지고 자유로운 느낌을 살린 부드러운 곡선 몰딩을 주로 사용하였고 딱딱하고 엄격히 구조된 바로크식에서 벗어나 추상적이고 불규칙한 곡선미의 실내풍이 로코코 양식의 대표가 되었다.

실내에 사용된 색채는 주로 옅은 색인 장미색, 라일락색, 하늘색, 겨자색, 연한 초록색 등의 여성적인 색이었다³⁷⁾(그림 2). 장식적으로 금·은색의 색채도 흔히 사용한 걸 찾아볼 수 있다(그림 3).



<그림 2> 로코코 시대 실내장식 I

(오혜경(1992), 실내장식의 변천사, p.22.)



<그림 3> 로코코 시대 실내장식 II

(이연숙(1998), 실내디자인양식사, p.95.)

35) 막스 폰 뷔, 천미수 역(2000), 패션의 역사, 서울: 한길아트, p.46.

36) 베니아마, 서상원 역(2006), op. cit., p.159.

37) 오혜경(1992), op. cit., p.22.

실내의 평면적인 공간뿐만 아니라 벽면 장식에 들어가는 벽난로, 콘솔, 쫓대 등 그리고 바닥 장식까지 모두 실내장식에 포함되어 호화로운 로코코 실내공간을 연출하였다. 로코코 시대의 벽난로는 여러 색깔의 대리석으로 감싸서 만들었고, 덩치만 크던 이전의 벽난로 스타일보다 크기는 작지만 난방 효과도 높아져 18세기 실내 인테리어에 빼놓을 수 없는 실내장식이 되었다 (그림 4).



<그림 4> 벽난로 스타일

(이연숙(1989), 서양의 실내공간과 가구의 역사, p.25.)

점점 더 활발히 내부가 발달할수록 로코코 실내에 어울리지 않는 장식품들은 환영받지 못하게 되었다. 바로크 시대부터 내려온 커다란 대형 가구는 사라지고 아기자기하고 섬세한 살롱시대에 어울리는 개인의 취향을 반영한 로코코식 가구들이 호황을 누렸다. 가구업계의 호황으로 수요는 점점 늘어났지만 교역이 발달하지 않았던 당시에 수입산 고급 목재로만 가구를 만들어 내는 일은 쉽지 않았다. 그래서 에베니스트³⁸⁾들은 보통 나무로 만든 가구 위에 고급 장미목을 얇게 붙이는 눈속임 같은 기술을 부리기 시작하였

38) 에베니스트(ebeniste)- 속과 겉의 나무가 다른 가구들을 만드는 장인. (이지은(2006), 귀족의 은밀한 사생활, p.143.)

고, 당시 흔히 사용하던 가구 기술이 바로 ‘마케트리(marquetry) 기법’이다. <그림 5>와 같이 마케트리란 종류가 다른 작은 나무 조각을 가구 표면에 붙여 다양한 문양을 만드는 전통적인 가구 장식 기술이다³⁹⁾.



<그림 5> 마케트리 기법의 가구

(이연숙(1989), 서양의 실내공간과 가구의 역사, p.35, p.55.)

마케트리 외에도 로코코 시대에 나타난 가구양식은 로코코의 실내양식과 일치하고 있으며 가장 큰 특징은 곡선의 애용과 형태의 융합성이다⁴⁰⁾.

훌륭하고 새로운 형태의 가구가 많이 디자인 되었고 안락함을 추구하는 형태와 기술면에서 완벽함을 이루어냈다. 직선적 요소들은 가능한 한 보이지 않게 제작하려 애썼으며 어느 것이나 곡선의 형태를 사용하려고 한 노력도 볼 수 있다. C형 소용돌이무늬도 그 시대에 자주 사용된 장식적인 요소로 아주 과다하게 사용된 것을 볼 수 있다. 가구의 기본적인 형태는 대칭으로 하되 장식의 표현은 비대칭적인 배치를 통해 상상력과 예술성을 표현하였고 비대칭 속에서도 균형을 잃지 않는 아름다운 조화로 세련되고 훌륭한 가구들을 탄생시켰다⁴¹⁾.

39) 이지은(2011), 부르주아의 유쾌한 사생활, 서울: 지안출판사, p.330.

40) 베니아마, 서상원 역(2006), op. cit., p.167.

로코코 시대의 가구 중에서도 가장 화려한 가구로 의자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데 로코코식 의자는 모두 곡선으로 이루어진, 형태의 융합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가구라 할 수 있다. 등받이, 팔걸이, 다리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매끄러운 곡선을 그리듯이 디자인되어 있다. 그래서 어디서 어디까지가 등받이며, 어디서 어디까지가 다리인지 알 수 없을 만큼 각 부분의 모양이 전체 속에 융합되어 버렸다⁴²⁾.

루이 15세 때의 의자는 우아하고 부드러운 몰딩으로 강조한 연속적인 곡선이 특징적이었다. 그 몰딩 틀은 흔히 조각된 잎과 꽃 장식으로 덧붙여졌다. 이 당시에 잘 제작된 의자는 거의 캐브리올 다리(Cabriole leg)로 되어 있었다. 대부분 굽은 다리는 소용돌이 형태로 마감 되거나 변형시켜 우아하게 돌출되어 처리하였다⁴³⁾. 또, 여러 종류의 의자들이 제작되었는데 그 중 <그림 6>의 ‘포테이(Fauteuil) 의자’는 등받이와 좌석이 붙어 있지 않고 작은 천이 씌워진 팔걸이가 있는 의자로 등받이는 ‘칼투슈(cartouche)’⁴⁴⁾ 형태를 주로 사용하였다. <그림 7>의 ‘베르제르(Bergere)’라는 명칭의 의자는 테두리와 다리를 제외한 모든 부분을 천으로 씌운 의자로 나지막한 팔걸이를 가지고 있다. 베르제르 의자는 매우 안락하고 매력적인 형태를 지닌 의자이며 기본 형태에서 조금씩 변형된 디자인으로 다양하게 제작되었다⁴⁵⁾.

곡선을 애용하는 로코코 실내장식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로코코 가구문화에서도 또 다른 독특한 점을 찾을 수 있다. 바로 ‘퓨전 가구’이다. 동양 가구 위에 붙은 칠기판들을 떼어다가 프랑스 고급 가구에 붙이는 아이디어로 독특한 퓨전 가구가 탄생하였고, 유행처럼 번져 나가게 되었다⁴⁶⁾. 동양

41) 공혜원(2012), 서양 가구의 역사, 경기도: 살림출판사, pp.26~27.

42) 베니야마, 서상원 역(2006), op. cit., p.167.

43) 이연숙(1989), 서양의 실내공간과 가구의 역사, 서울: 경춘사, pp.39~40.

44) 칼투슈(cartouche): 소용돌이 형태나 꽃줄 같은 장식으로 둘러싸인 방패 또는 타원형의 장식. (공혜원(2012), 서양가구의 역사, p.28.)

45) 공혜원(2012), op. cit., p.28.

46) 이지은(2006), op. cit., p.178.

칠기가 유명해지면서 유럽에서는 그 비법을 알아내려고 노력했고, 칠기 가구 특유의 옷칠에 가까운 효과를 내려 개발을 아끼지 않았다. 그 결과 남미산 열대수의 수지에다 금가루와 은가루를 섞어 반짝이는 효과를 주는 ‘베르니 마르탱(Vernis Martin)’ 이라 불리는 칠을 개발했다. 비슷한 기술을 개발하였지만 동양의 옷칠을 따라가기 어려웠고 수입 칠기판이 붙은 가구는 이 당시에 상상할 수 없이 비싼 값에 거래가 되는 등 로코코 시대의 퓨전의 열풍을 불고 왔다⁴⁷⁾.



<그림 6> 포테이 의자



<그림 7> 베르제르 의자

(이연숙(1989), 서양의 실내공간과 가구의 역사, p.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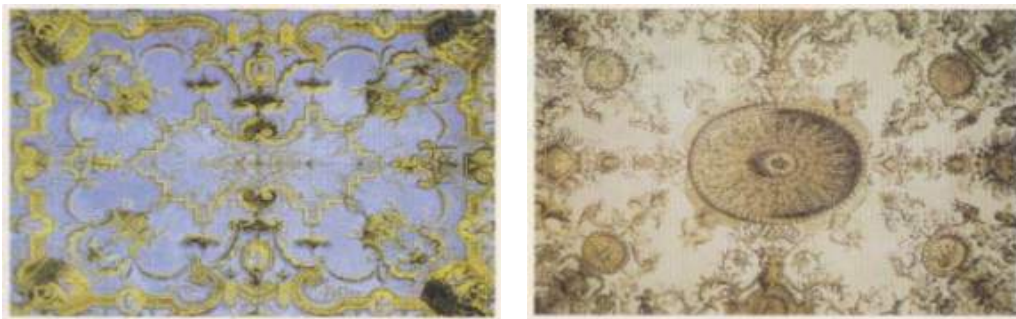
(3) 문양

데생하는 사람들이라는 이름의 ‘데시나퇴르(Dessinateur)’라는 직업인은 각종 문양과 장식만 전문적으로 도안한 그림을 그려 팔았다. 이들의 디자인은 주로 판화로 대량으로 만들어져서 루브르 궁 인근의 서점가에서 싸게 구할 수 있었다⁴⁸⁾.

47) Ibid., p.179.

또한 벽지에 나무 토막에 문양을 새겨 손으로 찍는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 제작하였는데, 영국에서는 이러한 벽지를 16세기경부터 사용하였으나 프랑스에서는 18세기 초에 와서야 유행하였다. 의자 커버에 사용한 직물 문양 역시 동판으로 찍어서 만들기도 하였다⁴⁹⁾.

당시 인쇄기술의 발달로 대량 출판이 가능해지면서⁵⁰⁾ 문양집을 내거나 문양을 디자인하여 파는 것은 흔한 일이었고, 외국에서 일부러 그들의 디자인을 구하러 파리까지 올 정도로 명성이 높은 장식가와 데시나퇴르들도 많았다. 특히, 베랑(Jean Berain, 1678~1726) 같은 데시나퇴르는 지금까지도 이름을 날린다⁵¹⁾(그림 8).



<그림 8> 베랑의 문양

(이지은(2006), 귀족의 은밀한 사생활, p.151.)

로코코 시대의 살롱문화가 실내장식의 변화를 몰고 왔듯이 벽지문양, 장식문양, 직물문양, 복식문양 등에도 부드러움과 섬세함이 조화를 이루었다. 로코코의 어원에 담긴 뜻처럼 조개모양이나 자연물 형상뿐만 아니라 C자나 S자 같은 기본 형태 위에 교차곡선과 역곡선을 그린 문양으로 장식했는데, 대칭 보다는 비대칭을 기본으로 하는 문양⁵²⁾이 특징이다. 로코코의 비대칭

48) Ibid., p.151.

49) 오혜경(1992), op. cit., p.25.

50) 정홍숙(1997), op. cit., p.240.

51) 이지은(2006), op. cit., p.151.

형은 1780년대까지 최고의 인기를 누린 우아하고 유려한 꽃, 깃, 잎새 등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⁵³⁾. 로코코식의 섬세한 문양은 <그림 9>와 같이 직물의 문양에서도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 이 시대의 견직물 문양에는 시대의 취향이 반영되어 섬세함이 넘치며 금·은사를 섞은 호화로운 자수가 특징이다. 색조의 조화에도 신경을 써, 은근한 느낌을 주는 푸른색, 장미색, 녹색 등은 부드러운 뉘앙스가 넘치며 배색이 매우 세련되었다. 루이 15세 시대의 짙은 붉은색에서 갈색에 이르기까지 붉은색 계열의 색상 및 푸른색은 유명하며, 루이 16세 때에는 갈색에 보라색이 섞인 색이 유행하였다⁵⁴⁾.



<그림 9> 18세기 다양한 직물 문양
(정홍숙(1997), 서양복식문화사, p.237.)

52) 신화영(2006), "로코코 양식을 응용한 직물 디자인 연구": 파티 구두를 제작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6.

53) 장군오(2002), 주얼리 마케팅, 서울: 문지사, p.163.

54) 정홍숙(1997), op. cit., p.240.

로코코 시대는 자수가 화려했던 시대로 루이 16세의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는 그린과 옅은 황색, 겨자색을 좋아하며 자수 장식을 즐겨하였는데 아기자기하게 부케와 화환 모양을 색 견사로 자수를 놓았다⁵⁵⁾(그림 10). 당시 남성 복식에서도 <그림 11>처럼 장식적인 성격을 띤 자수를 공들여 아름답게 꾸몄다. 특히, 앞 중앙과 포켓 근처에는 바탕색과 대조적인 색으로 섬세한 꽃모양의 수를 놓았다⁵⁶⁾.



<그림 10> 마리 앙투아네트의 직물 문양
(안토니아 프레이, 정영문 역(2006), 마리 앙투아네트, 부록)



<그림 11> 로코코 시대 남성 복식
(Jane Ashelford(1996), THE ART OF DRESS, p.136.)

55) 김경옥(1996), 서양복식사, 서울: 양서각, pp.150~151.

56) 정홍숙(1997), op. cit., p.261.

로코코식 자수는 이 밖에 신발, 부채, 양산, 손수건 등 기호품에 흔히 애호되었다(그림 12). 귀부인들은 외출이 드물었으므로 <그림 13>와 같이 천으로 만든 구두와 실내에서 사용하는 슬리퍼에 자수를 놓았고, 흰색 바탕에 금·은실과 색실로 자수한 양말을 귀하게 여겼다⁵⁷⁾.



<그림 12> 로코코 시대 스토마커
(Jane Ashelford(1996),
THE ART OF DRESS, p.128.)



<그림 13> 로코코 시대 구두
(Dorling Kindersley(2012)
FASHION- THE ULTIMATE
BOOK OF COSTUME AND
STYLE, p.142.)

한편 동양과의 계속된 교역으로 인도나 페르시아, 중국과의 접촉을 통해 유럽인들은 동양의 예술과 친숙해졌다. 동양의 건축물과 가구들은 유럽의 예술가들과 장인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색다른 탑, 뾰족한 모자와 변발을 한 인물들, 그 밖의 중국식 모티프 등을 직물 디자인에 이용한 스타일인 시누아즈리(chinoiserie)도 유행하였다(그림 14). 루이 16세 때에는 난형, 물방울무늬, 세로줄, 아칸서스 잎, 종려나무 잎, 이국적인 동물들, 그리

57) Ibid., p.272.

고 이집트의 스펡크스와 같은 고대의 장식적인 문양들도 사용했다⁵⁸⁾. 이국적인 문양의 사용으로 로코코 시대의 장식 문양은 더욱 풍부해졌다.



<그림 14> 시누아즈리 디자인의 벽장식
(이연숙(1998), 실내디자인양식사, p.99.)

(4) 오브제

오브제(Object)는 다양한 의미와 상징을 가지고 있고 그 범위 또한 분명하게 규정짓기 어려운 광범위한 부문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로코코 시대에 주로 사용되어진 시각적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입체적인 장식 및 장식식품, 조각, 공예품, 복식에 사용된 장식 등으로 범위를 한정지어 구분하였다.

로코코의 건축가들이 로카이유 무늬의 경묘함과 우아함에 주목하고 벽이나 문의 장식에 전적으로 로카이유를 사용하던 것⁵⁹⁾에서 로코코의 장식예술이 시작되었다. 곡선의 향연이라 할 수 있는 로코코 장식은 구불구불한 덩굴무늬가 벽면과 가구 등 각종 공예품의 테두리를 휘감으며 각이 지지 않게 하

58) 제르맹 바쟁, 김미정 역((1998), 바로크와 로코코, 서울: 시공사. p.196.

59) 베니아마, 서상원 역(2006), op. cit., p.162.

는 것이 특징이다. 당시 가구 테두리의 각을 메우기 위해서 또 다른 입체적인 장식품을 갖다 붙이기도 하였는데, 가구에 붙이는 청동 장식만을 전문적으로 파는 직업군이 있을 정도로 가구 장식 및 실내 장식이 번성하였다. 청동 장식을 전문으로 파는 사람을 ‘브롱지에(bronziers)’⁶⁰⁾라 불렀는데, 그중 브롱지에로 가장 유명하였던 사람은 왕실 전속 에베니스트로 임명된 샤를 크레성(Charles Cressent, 1685~1768) 이다. 그의 작품 중 양쪽에 브론즈 장식을 붙인 서랍장인 '코모드 영 아르발레트'가 가장 유명한데, 서랍장 양쪽에 붙어 있는 여인의 조각은 차가운 청동으로 만든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무척 우아하고 섬세하다. 이러한 장식을 <그림 15>과 같이 '에스파놀레트(espagnolette)'라고 한다. 크레성의 장식들은 과하거나 모자라지 않고 전체적인 가구의 윤곽선을 보다 아름답게 매만져 주는 역할로 그의 작품은 청동 장식의 섬세함이 일품으로 평가된다⁶¹⁾(그림 16).



<그림 15> 에스파놀레트



<그림 16> 청동 장식 가구

(이지은(2006), 귀족의 은밀한 사생활, p.161.)

60) 이지은(2006), op. cit., p.150.

61) Ibid., p.161.

구불구불한 곡선형 지지대로 된 가구 및 의자 등의 다리도 조개 장식과 소용돌이 된 잎사귀로 조각되어 만들어졌다. <그림 17>에서 보이는 것처럼 양식화된 새조개의 조가비는 가구와 벽판넬 치장에서 사용된 가장 흔한 장식이었고, 가구의 곡선과 조화를 이루는 소용돌이, 리본, 꽃, 조개들이 흐르는 듯 덮는 형태로 구성되었다⁶²⁾.



<그림 17> 로코코 시대의 벽면 및 가구장식
(이연숙(1989), 서양의 실내공간과 가구의 역사, p.23.)

자연적인 형태가 로카이유나 로코코 양식 장식의 근원이었고, 꽃과 잎으로 싸여진 돌과 조개껍질은 장식 주제로 많이 사용하였다. 리본으로 정리된 꽃, 가벼운 꽃, 과일 나무꽃, 작은 가지 등도 매우 많이 사용되었고 특히 장미꽃, 종려나무나 월계수의 가지는 인기 있는 장식 모티브였다⁶³⁾.

귀부인들은 벽면이나 가구에 어울리는 로코코 스타일의 생활용품 및 장식 품으로 실내 공간을 채우는 것에도 신경을 많이 썼고, 로코코 실내장식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생활용품들이 주목을 받았다.

62) 이연숙(1989), op. cit., p.28.

63) Ibid., p.39.

벽에 고정시켜 놓는 촛대인 <그림 18>의 ‘아플리크(applique)’는 촛대 역할 뿐 아니라 방 안에 고정되는 불박이 오브제의 역할로 사용되었으며 식물의 줄기를 모티브로 한 디자인으로 전형적인 로코코 스타일을 보여주는 장식품이다. <그림 19>의 물결치는 듯한 청동 장식으로 둘러진 벽시계는 파도 한 가운데에 시계판이 떠있는 듯한 모양새로 <그림 20>의 탁상시계와 더불어 로코코 스타일을 완성하는데 충분한 장식품이었다⁶⁴).



<그림 18> 로코코 장식의 촛대

(이연숙(1989), 서양의 실내공간과 가구의 역사, p. 57.)



<그림 19> 로코코 장식의 벽시계



<그림 20> 로코코 장식의 탁상시계

(이지은(2006), 귀족의 은밀한 사생활, p.195.) (이지은(2006), 귀족의 은밀한 사생활, p.283.)

64) 이지은(2006), op. cit., p.283.

또한 로코코 시대에는 중국이나 일본에서 수입해온 도자기가 귀한 예술품으로 여겨져 동양풍의 가구 및 자기에 열광하였다. 수입품을 거래하던 마상메르시에들의 기상천외한 조합으로 만들어진 동서양을 접목시킨 예술품이 <그림 21>의 퓨전 자기이다. 동양풍 그대로의 수입품은 프랑스식에 어울리지 않기에 중국·일본산 자기에 물결치는 곡선을 넣은 청동 받침대를 만들어 붙여 부가가치를 높였다. 청동 받침대들은 자기의 입구나 바닥을 보호하기도 했지만, 동양의 자기를 로코코 시대에 대표적 유행품으로 만드는 데도 지대한 공을 세웠다⁶⁵⁾.

퓨전 자기의 영향을 받아 유럽 자기 공예품에 발전을 이룬 것이 <그림 22>의 마이센 자기(Meissen porcelain)와 <그림 23>의 세브르 도자기(Sevres porcelain)이다.



<그림 21> 동서 퓨전 중국 자기

(이지은(2006), 귀족의 은밀한 사생활, p.180.)



<그림 22> 마이센 자기

(베니야마, 서상원 역(2006), 유럽에 빠지는 즐거운 유혹1, p.240.)

65) Ibid., p.179.



<그림 23> 핑크색 세브르 도자기
(이지은(2006), 귀족의 은밀한 사생활, p.252.)

세브르는 특히 자기를 무척 좋아하는 풍과두르 부인의 총애와 후원을 받았던 곳으로, 짙은 색상에 섞여 밝은 파스텔 색조의 미묘한 중간색이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이 세브르 도자기이다. 붓놀림의 절묘함에 곁들여 화폭에 그린 세밀화 같은 자기의 그림이 돋보이며, 바탕색으로 자주 쓰이는 독특한 청담색과 붉은 빛이 도는 장미색이 자주 사용되었다. 그 밖의 연녹색, 터키색과 같은 청색, 담자색, 자연스런 황색, 갈색을 잘 쓰는 것도 세브르 자기의 특징이다⁶⁶⁾.

마이센 자기는 접시, 대접, 화병 등에 디자인을 하고 인물, 동물을 조각한 조소 자기를 창시하였다. 조소 자기는 관상용으로 대 호평을 받으며 현재에 이르기까지 마이센 자기의 명물 중 하나가 되었다. 처음에는 중국, 일본의 자기를 흉내 내었으나 이후 밝은 색으로 섬세한 꽃 모양을 그리는 것이 마이센 자기의 특색으로 만들어냈다⁶⁷⁾.

실내장식 및 장식품은 사치와 과시의 상징이 되어 자연스럽게 그 문화를

66) 베니아마, 서상원 역(2006), op. cit., p.244.

67) Ibid., p.240.

즐기는 여성들의 복장에도 장식적 요소가 물들게 되었다. 18세기에 영향력이 있는 두 여인, 마담 퐁파두르와 마리 앙투아네트는 프랑스 사교계의 패션 리더로 그녀들의 취향은 당시의 예술과 의상 양식의 샘플이 되었다. 가볍고 날아갈 것 같은 옷감을 즐겨 썼고 프릴, 러플, 레이스, 리본, 꽃 등의 장식요소를 사용하여 여성다움을 의상에 최대한으로 표현하였다⁶⁸⁾. 의상 한 벌에 모든 장식요소가 다 들어 있었으며 장식기법으로는 리본장식, 꽃 장식, 레이스 장식, 자수 장식 등을 화려하게 사용하였는데, 주로 가슴과 스커트에 집중적으로 장식되어 수많은 꽃과 곡선이 파도처럼 연이어 약동하는 느낌을 주었다⁶⁹⁾(그림 24).

의상 뿐 아니라 헤어스타일에도 <그림 25>처럼 머리카락 위에 조화나 리본, 레이스 캡, 깃털 등의 섬세한 장식을 사용하였고 점점 나아가 헤어 장식의 크기가 높아지고 거대해져 복잡함을 형용하기 힘들 정도로 과해졌다⁷⁰⁾.



<그림 24> 마담 퐁파두르

(Francois Boucher(1987), 20,000 YEARS OF FASHION, p.297.)

68) 한순자 외 2명(2001), op. cit., p. 100.

69) 백영자, 유효순(2003), 서양의 복식문화, 서울: 경춘사, p.219.

70) 한순자 외 2명(2001), op. cit., p.110.



<그림 25> 로코코 헤어스타일

(블랑쉬 페인, 이종남 외 역(1988), 복식의 역사-고대 이집트에서 20세기까지, p.490.)

(5) 주얼리

18세기는 다이아몬드의 시대라고 불려도 좋을 만큼 다이아몬드가 보석의 주인공으로 각광받던 시대였다. 다이아몬드의 아름다운 빛에 매료된 왕실 사람들과 귀족들은 앞다투어 다이아몬드로 자신을 치장하였다.⁷¹⁾

로코코 양식은 주얼리에도 영향을 미쳐 자유분방한 곡선이 애용되었고 꽃, 나비, 리본 등의 디자인이 유행하였다. 목걸이에는 정교한 꽃으로 장식된 스크롤 모티브가 비대칭적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부케(bouquet) 형태가 사랑 받았는데 여기에는 수백 개의 다이아몬드가 소요되었다. 1750년대에는 부케 형태의 다이아몬드 주얼리의 인기가 절정에 달해 전 유럽을 휩쓸었는데, 대부분 드레스에 달거나 머리에 장식했다⁷²⁾.

<그림 26>는 브릴리언트컷(brilliant cut) 다이아몬드 꽃과 에메랄드 줄기

71) 홍지연(2006), op. cit., p.18.

72) Ibid., p.22.

로 꾸민 부케형으로 이전에는 대부분 무색투명한 원석을 그대로 사용했다면 이 주얼리의 색조는 다이아몬드에 다양한 유백색을 입힌 형태이다⁷³⁾.



<그림 26> 부케 주얼리
(클레어 필립스, 김숙 역(2000), 장신구의 역사, p.110.)

꽃을 모티브로 한 디자인의 인기는 18세기 중반의 <그림 27>의 지아르디네티(giardinetti)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지아르디네티는 이탈리아어로 ‘작은 정원’이라는 뜻으로, 섬세한 투각 바탕에 유색보석과 로즈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작은 꽃바구니 형태의 주얼리를 말한다⁷⁴⁾.



<그림 27> 지아르디네티 반지
(클레어 필립스, 김숙 역(2000), 장신구의 역사, p.110.)

73) 클레어 필립스, 김숙 역(2000), 장신구의 역사, 서울: 시공사, pp.112~113.

74) Ibid., p.114.

프랑스어로 샹들리에를 의미하는 <그림 28>의 지랑돌(girandole) 역시 인기 있는 모티브로서 가운데의 매듭장식을 중심으로 드롭 세 개를 매달아 조그만 움직임에도 흔들리도록 고안되었다. 미세한 움직임에도 달랑거리며 프리즘처럼 오색찬란한 빛을 반사해 다이아몬드의 광채를 가장 효과적으로 돋보이게 하는 디자인이다⁷⁵⁾.



<그림 28> 지랑돌 목걸이
(홍지연(2006), 시간이 만든 빛의 유혹-엔틱 주얼리, p.24.)

18세기 주얼리와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세공기법으로 <그림 29>의 클로즈드 백(closed back) 기법이 있다. 보석의 뒷면을 막은 것으로 은이나 동으로 된 호일을 안쪽에 댄으로써 보석의 색과 광채를 향상시키는 효과를 내는 기법이다⁷⁶⁾.

18세의 장신구는 고가의 다이아몬드와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 페이스트(paste) 소재의 장신구도 만들었다. 페이스트 장신구의 경우, 유리석은 다이아몬드처럼 커팅 연마한 후 박을 씌우고 은에 클로즈드백 세팅을 하였다. 페이스트로는 다양한 크기와 형태가 가능했으며, 디자이너들도 천연 다이아몬드를 대할 때에 비해 긴장하지 않고 작업에 임할 수 있었다. 다른 귀석 또한 유리로 모방이 가능했다⁷⁷⁾. 이런 페이스트 장신구들은 낮에 어울리는

75) 홍지연(2006), op. cit., p.24.

76) Ibid., p.25.

77) 클레어 필립스, 김숙 역(2000), op. cit., p.116.

장식, 특히 구두 버클이나 단추에 많이 사용되었다(그림 30).



<그림 29> 리본 매듭 형태의 주얼리 - 클로즈드 백 기법
(홍지연(2006), 시간이 만든 빛의 유혹-엔틱 주얼리, p.25.)



<그림 30> 페이스트로 된 브로치와 구두 버클
(홍지연(2006), 시간이 만든 빛의 유혹-엔틱 주얼리, p.26.)

또, 루이 15세의 정부 폰파두르 부인은 진주를 특별히 좋아하였는데 머리와 귀고리, 넥 프릴 위로 짝 줄라매는 목걸이, 그리고 네 줄로 된 한 쌍의

팔찌 등에도 모두 진주를 사용하였다⁷⁸⁾.

진주 귀걸이도 당시 많이 애용되었는데 이것은 한 줄로 된 진주 목걸이와 세트를 이루는 것이었고, 꽃과 리본을 엮은 화환형의 목걸이도 있었다⁷⁹⁾.

2. 네일아트의 표현방법

네일아트는 네일 아티스트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창의성과 예술성이 더해져 새로운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분야이다.

오늘날의 네일아트는 기존의 색채중심의 디자인에 비해 여러 가지의 장식적인 기법과 도구, 재료들의 개발로 네일아트의 표현범위가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⁸⁰⁾. 본 연구는 로코코 시대에 장식 요소를 응용한 네일아트 디자인을 제시하기 위하여 작품 제작 시 필요한 대표적인 네일아트 재료와 표현 기법으로 정리하였다.

1) 네일아트의 재료

네일아트의 재료로는 자연 손톱의 길이와 모양을 조형하여 인조 손톱을 만들 수 있는 아크릴릭 시스템(Acrylic System) 재료와 젤 시스템(Gel System) 재료로 크게 구분할 수 있고, 그 밖에 여러 종류의 아트용 재료로 나눌 수 있다.

아크릴릭 시스템은 액체 아크릴(liquid acrylic)과 파우더 아크릴(acrylic powder) 제품으로 나누며⁸¹⁾, 그 외의 부재료들로 구분할 수 있다. 젤 시스템은 램프에 경화되는 U.V젤의 종류로 딱딱하고 강한 결합체의 하드 젤(Hard gel)과 점도를 낮추고 움직임이 쉬운 소프트 젤(Soft gel)등으로 나

78) 원종옥(2009), 그림에서 보석을 읽다, 서울: 이다미디어, p.154.

79) 조진애 외 2명(2001), 서양 복식의 역사, 서울: 경춘사, p.338.

80) 이상봉(2004), “전통문양을 이용한 네일아트 디자인 연구”, 대구 미래대학 논문집, p.261.

81) 이은경(2004), 네일아트, 서울: 광문각, p.154.

누어 볼 수 있으며⁸²⁾, 그 외의 부재료로 구분할 수 있다. 아트용 재료의 종류로는 매우 다양하여 그 중 대표적인 아트 재료로 팔리쉬, 물감, 에어브러쉬, 인조보석 등으로 나누어 보았다. 이에 따른 재료의 구분은 <표 1>과 같다.

<표1> 네일아트 재료

구분	네일 재료	종류	용도	특징
아크릴릭 시스템 (Acrylic System)	폴리머 (Polymer)	클리어, 핑크 화이트	익스텐션, 오버레이 등	기온 변화에 민감. 냄새가 심함.
		컬러파우더	엠보아트, 디자인스캡춰	
	모노머 (Monomer)	.	파우더와 섞여 중합체(Bead)를 형성	
	그 외	아크릭브러쉬	형태 조형	
다펜디쉬		모노머를 담아 쓰는 용기		
젤 시스템 (U.V Gel System)	하드 젤	클리어, 핑크 화이트	익스텐션, 오버레이 등	광택이 뛰어남. 냄새가 없음. 반드시 큐어링 해줘야함.
	소프트 젤	컬러젤	디자인 표현 가능	
		팔리쉬젤	컬러링	
	그 외	U.V 램프	젤 경화	
		젤 브러쉬	형태 조형, 컬러링	
젤 클렌저		미경화 젤 제거		

82) 벨라포마 코리아, はじめに, Japan: Bella Forma, p.6.

아트용 재료	네일 폴리쉬	무광, 형광, 야광, 메탈, 크랙 등	컬러링	발색력이 좋음.	
	아크릭 물감	.	평면적인 디자인 표현	빨리 마르는 장점이 있으며, 사용이 쉬움.	
	에어브러쉬	에어브러쉬 건(gun)	물감 분사	.	같은 디자인 반복 표현 가능.
		에어브러쉬 물감			
		콤프레샤	압축 공기 제공	정교한 디자인에 용이.	
		스텐실	디자인 도안		
	인조보석	스톤, 참 파츠,댕글 등	장식 및 디자인 표현	빛깔이 화려함.	
	데칼	워터데칼, 스티커, 스트라이핑 테이프 등		사용이 간편함. 디자인이 다양함.	
그 외	글리터, 자개, 생화 등	장식용	접착력이 없어 아크릴릭 혹은 젤 등과 함께 사용.		

2) 네일아트의 표현 기법

네일아트의 표현 기법은 자연 손톱에 접착제를 이용한 네일팁을 붙이거나 네일 폼을 이용하여 손톱의 길이와 형태를 자유롭게 해주는 네일 익스텐션과 손톱의 작은 공간에 그림을 그려 넣거나 작은 인조보석이나 장식을 하거나 아크릴릭 시스템이나 젤 시스템을 이용하여 평면적인 디자인을 구상하는 디자인 아트, 입체적인 모양을 만드는 2D 아트⁸³⁾, 3D 아트, 에어브러쉬 등의 장식 아트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1) 네일 익스텐션(extension)

네일 익스텐션은 자연 손톱을 길게 연장하는 기술을 통칭하는 말로, 인조 손톱을 만드는 기술이다. 인조 네일의 형태에는 찢어진 손톱이나 얇은 손톱의 보강을 위해서 한 겹 덧입혀주는 리페어(repair)의 기술과 네일 팁(tip)을 붙여 연장 후 덧입혀주는 오버레이(Overlay)의 형태도 있지만, 본 논문에서 더 많이 활용되는 형태는 종이 폼(form)을 0.1mm정도 남은 프리엣지(Free edge)⁸⁴⁾ 밑에 끼워 지지대 역할을 하게 한 후 아크릴릭 재료, UV 젤 재료를 이용하여⁸⁵⁾ 길이와 모양을 조형해 나가는 스카프(sculpture)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그림 31>의 원톤 스카프는 어느 색이든 단일색으로 네일 전체를 커버하는 것으로 해당 색의 아크릴 파우더⁸⁶⁾나 젤을 사용하는 형태이다. 두 개의 색상으로 하는 <그림 32>의 투톤 스카프와 다양한 컬러의 파우더를 가지고 여러 가지 원하는 모양으로 디자인을 하고 클리어 파우더를 다시 씌워주는 형태⁸⁷⁾의 <그림 33>의 디자인 스카프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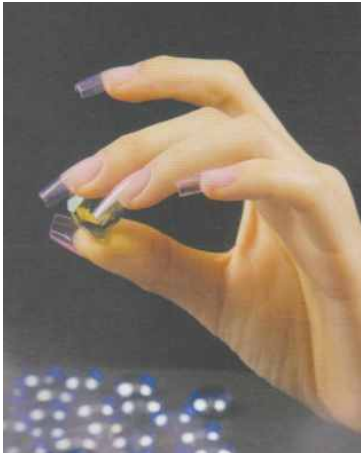
83) 김미원 외 2명(2012), Nail Exam-Study&Exercise, 서울: (사)한국네일지식서비스협회, p.103.

84) 프리엣지(Free edge) : 네일의 끝부분으로서 피부와 떨어져 있고, 그 길이를 자유롭게 잘라낼 수 있는 네일 구조의 한 부분. (김미원(2011), Nail Study, 서울: (사)한국네일지식서비스협회, p.15.)

85) 조슬아 외 3명(2013), 네일아트 美術, 서울: 구민사, p.180.

86) 이은경(2004), op. cit., p.154.

87) 김신희(2011), “한국의 민화를 모티브로 한 네일아트 연구”, 건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5.



<그림 31> 윈톤스캡취
(김동연 외(2007), Beauty
stylist Nail art book, p.154.)



<그림 32> 투톤스캡취
(봉숭아손톱 Vol. 7,
서상미 作, p. 36.)



<그림 33> 디자인스캡취
(봉숭아손톱 Vol. 6,
박효진 作, p.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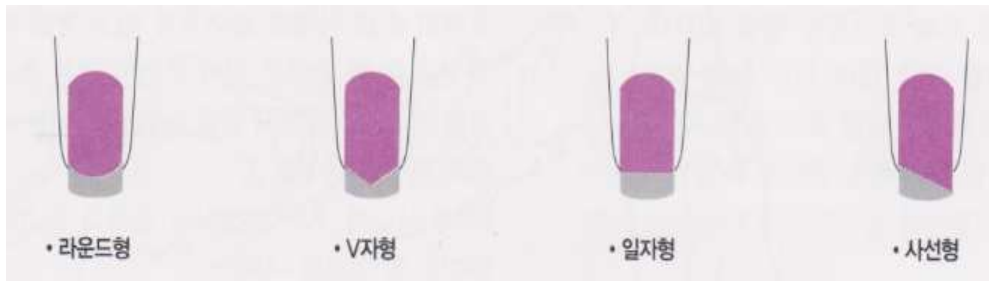
(2) 평면아트

① 폴리쉬 아트(polish art)

폴리쉬 아트는 네일아트에서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컬러링 제품인 팔리쉬를 이용하여 디자인하는 것으로 펄, 메탈, 크랙 등 다양한 색감이 있는 것이 장점으로 다채로운 효과를 낼 수 있다. 팔리쉬 기법에는 컬러링 위주의 프렌치 컬러, 그라데이션 컬러 등이 있고, 디자인 위주의 타일아트, 마블 기법이 있다.

프렌치 컬러링은 손톱 끝 부분의 컬러만 바꾸는 심플한 디자인부터 글리터, 인조보석 등을 더한 것까지 다양한 변화를 줄 수 있다.⁸⁸⁾ 프렌치 모양은 다양하게 변형되어 디자인할 수 있으며, 라운드형이 가장 기본형이며 응용된 형태로는 V자형, 사선형, 일자형, 구름형 등이 있다(그림 34).

88) 오타나베 키호, 이은주 역(2005), 네일 페디 큐어, 서울: 넥서스BOOKS, p.52.



<그림 34> 다양한 프렌치 모양의 응용
(김미원(2011), NAIL STUDY, p.39.)

그라데이션 컬러링은 서로 다른 색상을 뚜렷한 경계없이 자연스럽게 혼합시키는 기법⁸⁹⁾으로, 대부분 스펀지 조각을 이용하여 손톱 끝에서부터 큐티클 방향 쪽으로 두드려 주는 방식이다. 손톱이 길어 보이는 효과를 주며 글리터 컬러를 추가하여 화려하게 꾸며줄 수도 있다.

<그림 35>의 타일아트(tile art) 여러 가지 팔리쉬의 색감을 조각 조각 메워서 그리는 방식으로, 팔리쉬 뿐만 아니라 젤로도 가능하며 무늬마다 약간의 일정한 간격을 띄우며 빼곡하게 메꾸는 섬세한 기술이다.

마블(marble)아트란 <그림 36>과 같이 두 가지 이상의 색을 혼합하는 것으로 크게 입체마블과 물을 이용해서 하는 평면마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입체 마블은 네일 표면 위에 두 가지 이상의 색을 바른 후 오렌지 우드 스틱이나 마블 스틱을 사용해서 모양을 내며 혼합하는 방식이고, 평면마블은 워터마블이라고도 하며 미온수에 두 가지의 색상을 떨어트려 마블 스틱이나 오렌지 우드 스틱을 이용하여 모양을 만든 다음 손톱 표면을 담근 후 찍어내는 방식을 말한다⁹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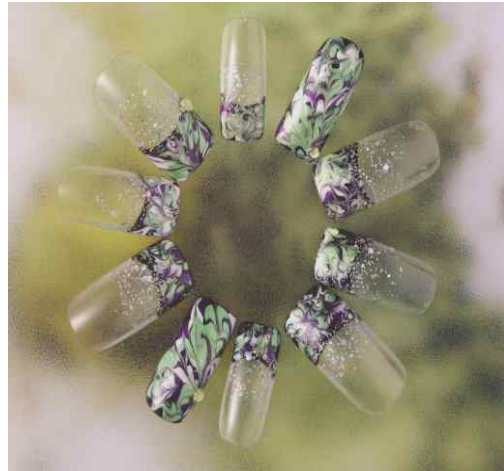
89) 이경민(2010), 나의 달콤한 메이크업, 서울: 그책, p.31.

90) 김광숙 외 3명(2001), 네일케어&아트, 서울: 고문사, pp.131~132.



<그림 35> 타일아트

(Korea Nail Salon Trend I, 서상미 作, p.45.)



<그림 36> 마블아트

(Korea Nail Salon Trend II, 손예랑 作, p.60)

② 핸드페인팅(hand Painting)

핸드 페인팅은 네일아트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아트용 브러쉬와 아크릴릭 물감을 이용하여서 손톱 위에 직접 디자인 하여 그리는 기법이다⁹¹⁾ (그림 37). 손톱의 크기에 맞춰 디자인의 크기와 각도, 위치 등을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으며 네일 아티스트가 표현하고자 하는 모든 디자인이 가능하다. 아크릴릭 물감을 사용하는 <그림 38>의 포크아트도 핸드페인팅에 속한다. 포크 아트는 16~17세기경 유럽의 귀족이나 상류계급 사람들의 가구, 또는 합석재 주방용품을 장식하기 위해 그림을 그려 넣는 것을 시작으로, 농민 계층의 사람들이 겨울의 여가시간을 이용하여 옛 가구나 낡은 집기 등에 고풍스러운 그림을 그려 넣으면서 점차 퍼지게 되었다. 포크 아트는 세월이 흐르면서 각 나라마다 고유의 스타일을 형성하며 발전하였고 여러 소재나 일상 생활용품 등에 자유롭게 표현하였다⁹²⁾. 이러한 포크 아트를 손톱 위에 그리기 시작하면서 하나의 네일아트 방식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91) 김동연 외 5명(2007), Beauty Stylist Nail art book, 서울: 삼성북스, p.216.

92) 장희진 외 5명(2011), 네일 아트 디자인, 서울: 훈민사, pp.145~146.



<그림 37> 핸드페인팅 아트

(출처: NAIL UP KOREA Vol.5 2009년 9월호
장인희 作, p.89.)



<그림 38> 포크 아트

(출처: Korea Nail Salon Trend II,
유신임 作, p.105)

③ 에어브러쉬 기법

<그림 39>와 같이 에어브러쉬는 콤프레서로 압축된 공기를 노즐을 통해서 내보내는 힘을 이용해 물감을 분산시켜 그림을 그리는 방법으로 밝고 부드러운 질감을 느끼게 한다⁹³⁾. 에어브러쉬는 색상이 바뀔 때마다 건을 세척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다른 기법들에 비해 시간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지만, 섬세하고 정교한 디자인을 표현할 수 있고 같은 디자인을 연속적으로 연출 할 수 있다. 또, 두께감이 느껴지지 않으며 원근감과 입체적인 그라데이션 표현이 장점이다⁹⁴⁾.

④ 프로트랜스(protrans)

<그림 40>의 프로트랜스 기법은 종이 위에 인쇄되어 있는 특정 그림이나 사진을 그대로 떼어내서 네일 위에 옮겨 주는 것으로 디자인의 소재가 다양하며⁹⁵⁾, 프로트랜스 전용액을 사용해야 된다. 프로트랜스 방법은 먼저 원하는 그림을 오려 프로트랜스 코팅액을 바른 후 손톱크기에 맞게 알맞게 오린

93) 강경화(2003), NAILCARE & DESIGN, 서울: 신정, p.150.

94) 김미원 외 13명(2006), The World of Nail Technology, p.273.

95) 이영순 외 2명(2000), 네일 관리학, 서울: 고문사, p.199.

후 그림을 벗겨내는 판에 놓고 물에 적신 블록으로 벗겨내 손톱에 붙인다. 마무리로 프로트렌스 코팅액을 한번 더 바르고 탑코트 등의 마감재로 마무리 한다⁹⁶⁾.



<그림 39> 에어브러쉬 아트 - 최선미 작
(김미원 외(2006), The World of Nail Technology, p.276.)



<그림 40> 프로트렌스 아트
(출처: <http://cafe.naver.com/2sonnailart/4524>, 검색일자 2013.11.12)

96) 김광숙 외 3명, op. cit., p.132.

(3) 입체아트

① 엠보 아트(embo art)

<그림 41>의 엠보 아트는 아크릴릭 파우더를 이용하여 울룩불룩한 느낌의 반 입체적인 아트를 표현하는 기법⁹⁷⁾이다. 손톱 위에 볼륨감 있게 디자인하는 방식으로 엠보싱 아트, 2D 아트라고도 한다.

엠보 아트 재료로는 컬러파우더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엠보 아트가 가능한 젤 등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 볼록한 엠보 디자인만 시술하면 엠보 아트이고, 엠보 디자인 위에 클리어 제품을 덮어 마무리하게 되면 디자인 스캡취가 된다. 단면적인 디자인부터 입체적인 디자인까지 모두 가능한 아트 기법이다.



<그림 41> 엠보 아트

(NAILMAX COLLECTIONS Vol.12, p.51.)

② 3D 아트

<그림 42>의 3D아트는 독립적으로 볼 수 있는 입체적인 조형 장식을 이용하여 디자인하는 기법이다. 손톱 위에 장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식물을 사용하여 배열, 배치하는 것으로 창작성, 예술성 작품의 질 등으로 평가 받는 네일아트의 절정을 이루는 테크닉 분야이다⁹⁸⁾.

97) 김신희(2011), op. cit., p.13.

아크릴릭 제품 이외에도 와이어와 기타 조형물 등을 활용해 얼마든지 창작할 수 있으며 콘테스트나 네일쇼 등에 활용되어지는 것이 보편적이다. 실물에 가깝게 정교하게 만들어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⁹⁹⁾.

③ 믹스미디어 아트

믹스미디어 아트는 네일 재료의 한계도 없으며, 네일 테크닉 역시 핸드페인팅, 엠보 기법, 3D 기법 등 네일아트에 사용되는 모든 네일 기법으로 만든¹⁰⁰⁾ 복합적인 아트 분야이다. <그림 43>과 같이 작품성 네일아트에서 가장 많이 찾아 볼 수 있는 형태이다.

④ 라인스톤 아트(rhine stone art)

<그림 44>와 같이 라인스톤 아트는 다양한 색상과 모양의 스톤을 손톱 위에 접착하여 꾸며주는 기법이다. 표현하기 쉬운 것이 장점이고 광택이 화려하여 그 자체만으로 고급스러운 아름다움을 연출 할 수 있다¹⁰¹⁾.

다른 네일 표현 기법들과 함께 응용하기 편하며, 디자인의 화려함을 더해 주는 작업을 할 때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법이다. 라인스톤은 탑코트, 젤글루 등을 이용하여 접착할 수 있으나 탑코트는 접착력이 글루에 비해 떨어지기 때문에 오랜 유지를 원할 경우 탑코트 외에 다른 접착제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98) 곽은주(2011), "불화 속 연화문양을 응용한 네일 디자인 연구", 남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3.

99) 김동연 외 5명(2007), op. cit., p.233.

100) 김기현(2013), "기모노 문양을 활용한 네일 디자인 연구", 건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38.

101) 김미원 외 13명(2006), op. cit., p.286.



<그림 42> 3D 아트
 (봉숭아손톱 Vol. 9, 조한솔 作, p.125.)



<그림 43> 믹스미디어 아트
 (봉숭아손톱 Vol. 9, 정여진 作, p.63.)



<그림 44> 라인스톤 아트
 (Korea Salon Trend II, p.129.)

Ⅲ. 작품 제작

1. 디자인 의도 및 제작 방법

네일아트는 손톱에 표현하는 작은 예술로, 현재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이자 토털 미용의 확실한 한 분야로 자리잡고 있다. 컨셉과 스타일에 맞춰 손톱의 컬러와 디자인을 바꿈으로써, 급격히 변화하는 유행에 따라 네일아트의 디자인 역시 다양성을 추구하게 되었다.

네일아트 재료의 발전으로 디자인과 기법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기존에 상용되던 스타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디자인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하여 시대적으로 가장 화려한 장식이 돋보이던 로코코 시대의 장식적 모티브를 응용하여 예술성이 강한 네일아트 작품 디자인과 살롱에서도 시술 가능한 대중성이 있는 작품 디자인을 제시하여 네일 디자인의 다양화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특히 네일 아트는 아기자기한 디자인의 연출로 여성미가 돋보이며 디자인 위에 여러 가지 장식물을 부착하는 것이 로코코 시대의 예술 양식과 흡사하여 현재의 네일 디자인으로 사용되어도 손색이 없을만한 세련미를 갖추고 있다.

위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여성스럽고 화려한 이미지의 장식성이 돋보이는 다양한 네일아트 디자인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로코코 양식의 자유로움과 다채로운 표현 방식의 네일아트작품 총 17점을 디자인 및 제작하였다.

본 작품에서 나타난 네일아트 디자인은 로코코 양식의 장식요소를 모티브로 하고 있으며 곡선미와 여성미를 부각시키는 디자인과 다양한 형태의 꽃, 나비, 식물, 리본, 레이스 등을 표현한 문양, 조각 그리고 각이 없이 구불구불한 C자형, S자형의 디테일을 활용하여 작업하였다.

작품의 전반적인 색감은 18세기 대표적 인물인 풍파두르 부인과 마리 앙

투아네트가 선호한 색감과 로코코 양식에 주로 사용되어진 파스텔 계열과 금, 은색을 장식적으로 사용한 점에 착안하여 부드럽고 포근함이 느껴지는 색감을 주로 사용하였다.













디자인에 사용된 재료는 U.V 젤과 아크릴릭, 물감 등을 사용하였고, 장식적인 요소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스톤, 자개가루, 파츠, 데칼 등을 사용하여 로코코 양식의 특징을 더욱 극대화하였다.






본 작품에 사용된 네일아트 표현기법은 주로 핸드페인팅 기법을 가장 많이 활용하였으며 그 밖에 엠보 기법, 디자인 스킵취, 마블, 프로트렌스, 젤을 이용한 기법 등도 사용되었다. 손톱의 형태는 네일 작품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프리엣지 밑부분을 변형한 창작 웨입(shape)이나 롱팁(long-tip)에 디자인 하였고, 여성미를 느낄 수 있는 오발(oval)형 또는 스퀘어 오프(square off)형을 주로 사용하였다.

작품 구성은 총 17작품으로, 회화를 모티브로 한 작품 1점, 실내장식을 모티브로 한 작품 4점, 문양을 모티브로 한 작품 6점, 오브제를 문양으로 한 작품 3점, 주얼리를 모티브로 한 작품 3점으로 표현하였으며, 그에 따른 작품 계획은 <표 2>와 같다.

<표 2> 작품 계획도

작품 번호	모티브 소스	모티브 이미지	색상	표현기법	재료	시안
I	페트갈랑트		dark green orange red saddle brown	핸드페인팅 엠보 3D	물감 아크릴릭	
II	실내 벽면		Fire brick Gold Salmon White	마블 엠보	U.V 젤 아크릴릭	
III	마케트리 기법(1)		Light salmon Light yellow Coral Light pink Plum	핸드페인팅	폴리쉬 물감 U.V 젤	
IV	마케트리 기법(2), 시누아즈리		Black Gold	핸드페인팅 엠보	컬러젤 자개 스톤	
V	로코코 시대의 의자 다리		Bronze Black Gold	엠보 3D	아크릴릭 물감	
VI	베랑의 문양 (1), 복식장식		Light steel blue Black Goldenrod	프로트랜스	U.V 젤 스톤	

작품 번호	모티브 소스	모티브 이미지	색상	표현기법	재료	시안
VII	베랑의 문양 (2)		Dark goldenrod Bulry wood Black Peru	프로트렌스 엠보	U.V 젤 데칼	
VIII	로코코 드레스, 18세기 직물문양		Light purple violet Light pink	데칼	컬러젤 파츠 데칼	
IX	마리 앙투아네트 의 비단 문양		Gold Black White Teal	핸드페인팅	물감 스톤	
X	남성용 조끼, 자수 장식		Dark Red Gold	핸드페인팅	컬러젤 스톤	
XI	로코코시대 의 천 구두, 레이스 장식		Purple Pink White Light pink	익스텐션 핸드페인팅	물감 자개 스톤	
XII	에스 파놀레트		White Paleturquois e	3D 엠보	아크릴릭 U.V 젤	

작품 번호	모티브 소스	모티브 이미지	색상	표현기법	재료	시안
XII	장식 촛대 아플리크		Silver Light gray Light blue	마블 엠보	컬러젤 아크릴릭 파츠	
XIV	마이센 자기		White Gold Dark green brown Light blue	핸드페인팅	물감	
XV	로코코 주얼리		Midnightblue	라인스톤	스톤	
XVI	지아르디 네띠		Black Gold	라인스톤	스톤 파츠	
XVII	지랑돌		Black Gold	라인스톤 데칼	스톤 파츠 데칼	

2. 작품해설

1) 작품 I

- 모티브 : 페트 갈랑트
- 색 상 : Dark green, Orange red, Saddle brown
- 기 법 : 핸드페인팅, 엠보 기법, 3D 기법
- 재 료 : 아크릴릭 물감, 아크릴릭 재료, 스톤
- 해 설

<그림 45> 작품 I 은 프랑스 로코코 양식의 대표적인 화가인 장 앙투안 와토의 그림 화풍인 ‘페트 갈랑트’ 를 응용한 작품으로, 주로 귀족들의 모임이나 밀애를 주제로 한 그림이 특징이다. 본 작품에서도 귀족남녀가 디자인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며 상류층의 여유로운 풍류를 표현하기 위하여 전원미가 넘치는 야외를 배경으로 삼았다. 페트 갈랑트 화풍만의 특유의 색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선명한 원색보다는 혼탁한 황색, 녹색 계열의 색감을 활용하여 포근한 느낌을 연출하였다. 디자인의 중앙에 위치한 상류층 여인의 모습은 몸매의 굴곡이 돋보이는 노출 있는 드레스와 당시 풍파두르 부인에 의해 유행하였던 장미색을 선정하여 표현하였고, 같이 등장하는 남자는 세레나데를 연상하는 악기를 든 모습을 취함으로써 귀족들의 은밀하고 사교적인 연회를 표현하였다.

주로 세필화가 장점인 와토의 그림체에 착안하여 핸드페인팅 기법으로 세필 묘사를 하였고, 당시 로코코 복식에서 장식요소로 많이 찾아볼 수 있었던 꽃과 나비 장식을 3D 기법을 사용하여 입체적으로 연출하였다. 또한, 여인의 의상에서 로코코 시대를 연상할 수 있도록 치마폭을 풍성하고 볼륨감 있게 아크릴릭 파우더를 이용하여 엠보 기법을 활용하였고, 스톤을 사용해 더욱 여성스럽고 화려한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그림 45> 작품 I

2) 작품 II

- 모티브 : 로코코 실내벽면
- 색 상 : Fire brick, Gold, Salmon, White
- 기 법 : 마블, 엠보 기법
- 재 료 : 젤 폴리쉬, 아크릴릭 시스템, 아크릴릭 물감
- 해 설

<그림 46>의 작품II는 로코코 시대의 실내 벽면의 일부분을 모티브로 한 작품이다. 로코코식의 실내 장식은 직선보다는 부드러운 곡선 몰딩을 사용하여 각이 없이 매워 넣는 것이 특징이다. 실내 장식의 범위는 실내의 평면적인 공간뿐만 아니라 벽면 장식에 들어가는 벽난로, 대리석, 촛대, 거울, 초상화 등과 바닥 장식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다. 본 작품에서는 이러한 점에서 착안하여 실내 벽면 분위기를 낼 수 있도록 곡선으로 이루어진 몰딩으로 주로 디자인하였다. 몰딩은 C자형과 S자형의 디테일을 기본으로 하며, 당시 장식적 색감으로 많이 사용하였던 금색으로 고급스러운 느낌을 연출하였다. 또한, 벽면 장식에 포함되는 고급 자재인 대리석을 표현하여 벽면의 느낌을 더욱 살렸고, 돌출 장식인 초상화 조각과 인조 보석을 배치하여 입체적인 로코코의 실내 장식을 표현하였다. 톱 하나에 실내 장식의 벽면 한 칸이 되는 것처럼 연출하였고, 벽면 장식들을 같이 디자인하여 한 곳에 실내 장식 요소를 다양하게 담았다.

대리석 표현은 2~3가지의 젤 폴리쉬의 번짐과 자연스럽게 섞임을 이용한 마블링 기법을 사용하였고, 물결처럼 돌아가는 몰딩 곡선의 표현은 아크릴릭 파우더를 사용하여 엠보 기법으로 연출하였다. 금색의 입체 장식과 어울릴 수 있는 동일 계열의 참 스톤과 대리석 느낌의 각이 없이 매끈한 살구색의 진주 스톤을 함께 사용하여 실내 벽면 장식을 더욱 연상되도록 표현하였다.



<그림 46> 작품 II

3) 작품 Ⅲ

·모티브 : 마케트리 기법 (1)

·색 상 : Light Salmon, Light yellow, Coral, Light pink, plum

·기 법 : 핸드페인팅

·재 료 : 폴리쉬, 아크릴릭 물감, U.V 젤

·해 설

<그림 47>의 작품Ⅲ은 마케트리 가공 방식에서 기법을 착안하여 네일아트 디자인으로 응용한 작품이다. 마케트리 기법은 로코코 시대의 가구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가공 방식으로, 그 당시 프랑스의 교역 상황에 맞춰 속 재료는 국산 목재로 만들고 겉면에 평행으로 얇게 수입 목재를 잘라 붙이던 방법이다. 이 시대에 실내 장식 및 복식에서 흔히 사용되었던 파스텔 컬러 계열을 배경색으로 선택하여 전반적으로 여성스러움이 느껴지는 색채 배열을 하였다. 또한, 마케트리의 주된 방식인 한 겹 덧입히는 기법을 표현하기 위해서 강한 색감의 블랙 컬러로 디자인을 넣어 파스텔 컬러 위에 필름지가 덧입혀진 느낌으로 배치하였다. 디자인은 가구 장식의 주된 소재였던 식물의 줄기와 꽃을 형상화한 모습이다. 사용한 재료는 가장 아래쪽에 위치한 파스텔 색감은 일반 폴리쉬를 이용하여 컬러링 한 후, 그 위에 아크릴릭 물감으로 디자인을 그려 넣으며 무늬가 있는 얇은 막이 덧입혀지도록 표현하였다. 단순히 폴리쉬 위에 무늬를 내는 방식이 아닌 폴리쉬와 물감 사이에 U.V 젤을 덧어 레이어드 된 느낌을 줄 수 있으며 곁에서 봤을 때는 온전히 수입목재로 만들어진 것 같은 로코코식 가구와 흡사하게 이 작품 역시, 곁에서 봤을 때 젤 네일아트로 연출한 것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로코코의 마케트리 기법과 닮아있다.

테두리에는 포인트 장식 색감으로 많이 사용되었던 금색으로 마감하였고, 스톤을 사용하여 화려함을 강조하였다.



<그림 47> 작품 III

4) 작품 IV

·모티브 : 마케트리 기법 (2) , 시누아즈리

·색 상 : Black, Gold

·기 법 : 핸드페인팅, 엠보 기법

·재 료 : 컬러젤, 자개, 스톤

·해 설

마케트리 기법 중 얇게 겹면을 싸는 방식도 있지만, 문양끼리 딱딱 맞아 떨어지도록 표면에 나무를 정교하게 오려 붙이는 가구 장식 방법도 마케트리 기법의 하나이다. <그림 48>의 작품 IV은 하나하나 오려 붙여 문양을 만든 것에서 모티브를 얻어 제작한 것으로 마케트리 장식을 위한 스케치를 보고 디자인 하여 응용하였으며, 디자인 소재로 자주 등장하는 꽃과 나뭇잎, 줄기가 어우러진 디자인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당시 로코코 시대에는 중국 및 일본 등의 대한 환상에서 시작된 시누아즈리가 유럽 전역에 유행하였는데, 이 동양풍을 작품에 함께 표현하기 위해서 얇은 자개판을 이용하여 문양을 만들어 붙였다. 특히 마리 앙투아네트가 좋아하였던 프랑스식 가구에 동양풍의 자개판을 붙인 퓨전 가구의 느낌을 자개 문양으로 표현하였다.

베이스 컬러는 가구 느낌을 낼 수 있는 브라운 계열의 나무색도 좋지만, 동양풍의 퓨전 가구나 벽장식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블랙 컬러로 선택하여 오색 빛깔의 자개 디자인이 돋보일 수 있도록 배치하였고, 포인트 장식 컬러로는 펠이 들어간 실버 젤을 사용하여 고급스러움을 강조하였다. 네일의 웨입은 각지지 않은 네모난 형태의 스퀘어 오프 웨입으로 잡아 전체적으로 판의 느낌을 살렸고, 벽장식의 한 부분이나 탁자의 한 부분을 연상케 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다소 밋밋할 수 있는 디자인에 장식성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자개의 색감과 흡사한 오팔 색상의 스톤도 함께 사용하여 더욱 화려하게 연출하였다.



<그림 48> 작품 IV

5) 작품 V

- 모티브 : 로코코 시대의 의자 다리
- 색 상 : Bronze, Black, Gold
- 기 법 : 엠보 기법, 3D 기법
- 재 료 : 아크릴릭 시스템, 아크릴릭 물감
- 해 설

로코코 시대의 가장 화려한 가구 중의 하나인 의자는 모두 곡선으로 이루어져 형태의 융합성을 보여주는 디자인으로, 소용돌이 형태로 마감되거나 변형시킨 돌출형의 굽은 다리형인 캐브리올 다리가 특징이다. <그림 49>의 작품 V은 이러한 캐브리올 다리에서 모티브를 가져와 형상화 한 작품이다. 캐브리올 다리는 흔히 조각된 잎과 꽃 장식이 구불구불한 물결형의 디테일과 한 몸을 이루며 덧붙여져 있는 모양으로, 각 부분을 구분 지을 수 없이 융합되어 있는 의자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손톱의 큐티클 근접 부분부터 프리엣지까지 구분하지 않고 꽃과 잎사귀가 어우러지며 흘러 내리는 형태로 캐브리올의 느낌을 살렸다. 곡선의 아름다움을 강조하기 위하여 각지지 않게 모든 부분을 둥글게 하였고 끝 부분은 가구 다리의 끝 부분과 유사하게 마무리하였다. 또한, 가구 색감과 비슷한 브라운 계열을 선택하였고 당시 금가루와 은가루를 섞어 반짝이는 효과를 주는 베르니 마르탱(vernis martin)이라 불리는 칠에 착안하여 광택이 있어 보이도록 표현하였다. 브라운 색감에 펄감이 있는 골드 컬러를 섞어 칠한 뒤 블랙 컬러로 명암을 주어 더욱 조각된 굴곡이 입체적으로 보이도록 하였다. 전체적인 굴곡진 형태는 아크릴릭 시스템을 이용한 엠보 기법을 이용하였고, 익스텐션 기법으로 후리엣지 부분을 연장하면서 디자인을 이어주는 3D 형태로 캐브리올 다리를 조형하였다. 마무리는 광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젤 탑코트를 사용하여 마무리하였다.



<그림 49> 작품 V

6) 작품 VI

- 모티브 : 베랑의 문양 (1) , 복식 장식
- 색 상 : Light steel, Blue, Goldenrod
- 기 법 : 프로트렌스
- 재 료 : U.V 젤, 인조보석, 파츠
- 해 설

<그림 50>의 작품 VI은 로코코 시대의 대표적 데시나퇴르인 베랑의 문양을 모티브로 만든 작품으로, 베랑의 문양을 직접 인용한 디자인으로 연출하였다. 베랑 특유의 문양을 핸드페인팅 기법으로, 로코코 시대에도 유명한 문양을 관화로 만들어 그대로 찍은 것에 착안하여 프로트렌스 기법을 사용하여 문양 그대로를 디자인으로 옮겼다. 또한, 가늘고 여성스러운 느낌이 들도록 웨입은 오발형으로 잡았고 드레스형태에서 볼 수 있는 라운드 네크라인을 형상화 하여 루눌라(Lunula)¹⁰²⁾ 부분을 둥글게 굴러 네일 바디 본연의 색을 살리고 나머지 부분은 루눌라 프렌치 스타일로 배치하였다. 프렌치 라인이 네크라인이나 가슴선이라 생각하고 인조 보석 중 반구 형태의 진주로 장식하여 목걸이나 의복 장식을 표현하였다. 풍파두르 부인이 특별히 사랑하였던 보석으로 알려져 있는 진주장식을 선택하여, 하늘색의 베랑의 문양과 함께 어우러져 더욱 여성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로코코식 드레스의 가슴선에 많이 사용된 리본 형태의 장식을 표현하기 위하여 은색이 클로즈드 백 되어 있는 리본형 파츠를 덧붙였다. 파츠가 여러 개의 진주로 이루어져 더욱 우아한 분위기가 강조되는 작품이다.

102) 루눌라: 케라틴화가 완전히 되지 않은 어린 부분이며 유백색의 반달모양. (김미원(2011), Nail Study, 서울: (사)한국네일지식서비스협회, p.13.)



<그림 50> 작품 VI

7) 작품 VII

- 모티브 : 베랑의 문양 (2)
- 색 상 : Dark goldenrod, Bulry wood, Black, Peru
- 기 법 : 프로트렌스, 엠보
- 재 료 : U.V 젤, 데칼
- 해 설

베랑의 또 다른 문양을 모티브로 한 <그림 51>의 작품 VII은 웨입의 형태가 아닌 디자인에 곡선미를 살린 작품으로, 베랑의 문양을 일정하지 않은 자유 곡선의 형태로 잘라 디자인하였다. 곡선의 느낌이 잘 보이도록 조각들 사이의 간격을 띄어주거나 빈 공간으로 남겨 주었다.

남겨진 간격이나 공간은 그대로 두지 않고 옅은 브라운 계열의 문양 색상과 어울릴 수 있는 골드를 사용하여 고급스러우면서 곡선을 받쳐줄 수 있도록 채색하였다. 베랑의 문양 자체를 살펴보면 큰 원의 세부 디자인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것을 활용하여 로코코 시대의 실내 벽면에 붙어 있는 액자 장식의 느낌을 이끌어 내었다. 액자 부분을 섬세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초상화처럼 로코코 시대의 대표적 인물인 마리 앙투아네트의 얼굴을 작게 붙여 넣었고, 유리로 덮어진 형태를 보여주기 위해서 투명한 U.V 젤을 이용하여 평면이 아닌 곡선미가 느껴지는 볼록한 모양으로 변형하였다.

동그란 초상화 주변을 로코코 장식에서 흔히 사용하였던 레이스 무늬로 둘러서 마감하였고, 배경 문양의 자유 곡선을 따라 나뭇잎이나 식물의 줄기를 형상화한 S자형의 장식 곡선을 덧붙여 디자인을 더욱 화려하게 장식하였다.

디자인에 쓰인 기법을 살펴보면 베랑의 문양을 그대로 옮겨오기 위해 프로트렌스 기법을 사용하였고, 장식 곡선은 데칼을 써서 표현하였다. 액자의 느낌은 클리어젤을 여러 번 쌓아 올리는 엠보 기법을 사용하였다.



<그림 51> 작품 VII

8) 작품 VIII

- 모티브 : 로코코 드레스, 18세기 직물 문양
- 색 상 : White, Light purple, violet, Light pink
- 기 법 : 데칼, 라인스톤
- 재 료 : U.V 젤, 파츠, 스톤, 데칼
- 해 설

<그림 52>의 작품 VIII은 18세기의 견직물에 사용된 문양을 모티브로 한 작품이다. 로코코 시대의 직물 문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소재는 꽃 문양으로, 꽃의 종류 또한 매우 다양하다. 전원적인 분위기를 즐기는 귀족들의 성향에 맞게 자연적인 것을 모티브로 한 문양들이 대부분이지만 꽃 문양은 여성성이 강한 디자인으로 그 중 대중성이 강한 장미를 선택하여 디자인하였다. 꽃은 다채로운 색감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본 작품에서도 루이 16세 시대에 특히 유행하였던 퍼플 계열의 유사색감으로 장미 문양을 나열하였다. 배경은 로코코 시대의 하늘하늘한 드레스와 레이스의 색상을 참고하여 깨끗하고 가벼운 느낌의 화이트 컬러로 채색하였다. 또한, 옷감의 끝처리나 드레이핑이 끝나는 부분에 골드 색상으로 장식한 것에 착안하여 웨입의 테두리와 프렌치 라인에 골드 컬러를 둘러 마감하였다. 드레스에 달린 장식품이나 코사지도 함께 표현하기 위하여 입체적인 장미 형태의 파츠를 붙여 여성스러움을 강조하여 장식하였다.

웨입의 형태는 가늘고 길어 보이는 오발형으로 잡았으며 배경색 및 포인트 색상은 광택이 뛰어난 젤컬러를 사용하였다. 장미 디자인은 프린팅 된 워터 데칼을 이용하여 색감은 선명하면서 깔끔하게 디자인을 옮길 수 있었고, 복잡하지 않은 구도이지만 장미만으로도 공간에 화사함을 표현하였다. 장미 파츠도 광택이 있는 아크릴릭 소재로 된 형태를 사용하여 디자인과 어울리게 장식하였고, 스톤과 함께 붙여 마무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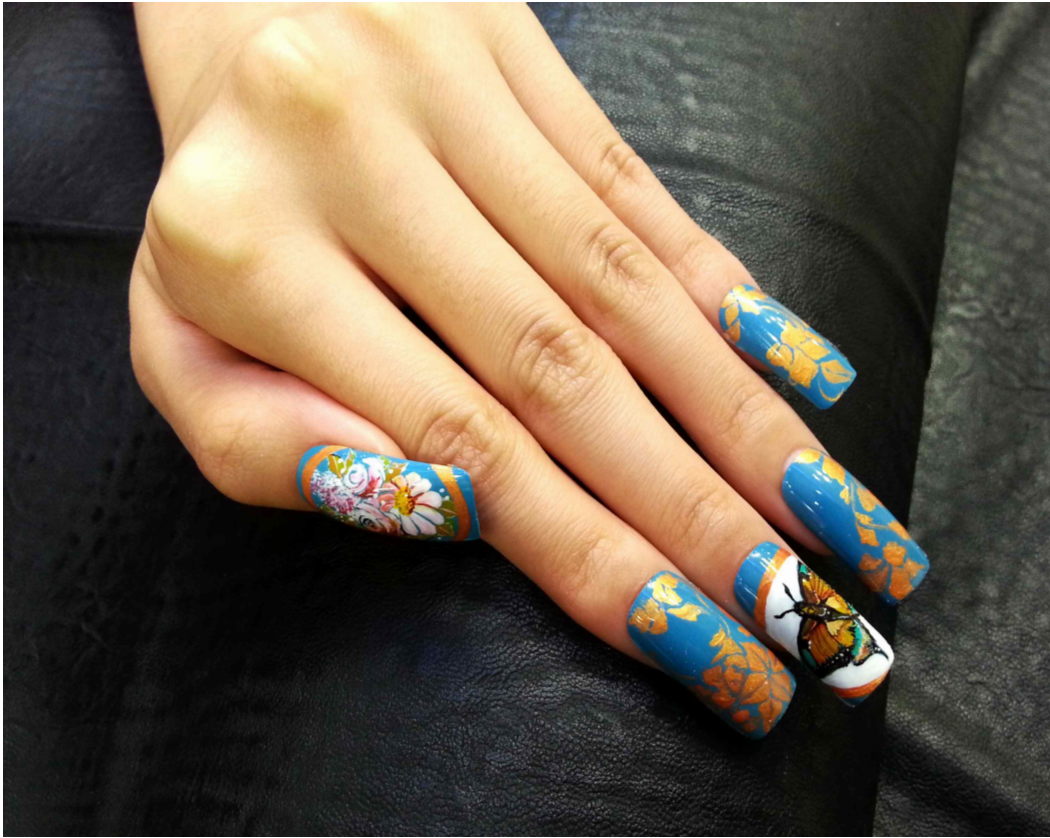
<그림 52> 작품 VIII

9) 작품 IX

- 모티브 : 마리 앙투아네트의 직물 문양
- 색 상 : Gold, Teal, Black, White
- 기 법 : 핸드페인팅
- 재 료 : 아크릴릭 물감
- 해 설

마리 앙투아네트는 비단 위에 색색의 견사로 자수를 놓아 의복으로 활용하기도 하고 여러 장식 용품으로 사용하였다. 마리 앙투아네트의 직물 문양이라고 알려진 그림을 모티브로 하여 디자인 한 작품이 바로 <그림 53>의 작품 IX이다. 자수의 섬세함과 화려함이 돋보였던 로코코 시대를 표현한 작품으로 정교한 표현이 특징이다. 동양풍의 비단 색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원색에 가까운 청록색으로 배경을 채색하였고, 모서리의 각만 없애준 스퀘어 오프형의 웨입으로 비단 형태를 표현하였다. 또한, 마리 앙투아네트가 좋아한 초록과 옅은 황색, 겨자색으로 나비 모양에 색을 입혔고, 아기자기한 화환 모양의 꽃다발은 다양한 색감으로 화려하게 하였고, 그 외의 디자인은 필감이 많이 들어간 황동색으로 채색하였다.

엄지에 들어간 부케 모양 형태의 꽃송이들은 그 시대의 문양에서 많이 나타난 장미와 종려나무, 식물의 줄기 및 잎사귀 등의 형태를 그려 넣었다. 그 밖에도 꽃잎과 줄기, 나비를 장식 문양으로 함께 표현하였다. 작품의 전반적인 기법은 아크릴릭 물감을 이용한 핸드페인팅 기법을 이용하였고, 꽃 바구니와 나비 문양은 세필 묘사 하여 다양한 색 견사로 이루어진 형태를 정교하게 나타내었다. 마지막으로 비단과 자수 장식의 느낌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색감이 많이 들어가 있어 눈에 띄는 장식물은 배제하였고, 광택을 살리기 위해 젤탑코트로 마무리 하였다.



<그림 53> 작품 IX

10) 작품 X

- 모티브 : 남성 복식, 자수 장식
- 색 상 : Dark red, Gold
- 기 법 : 핸드페인팅
- 재 료 : U.V 젤, 스톤
- 해 설

로코코 시대는 자수가 화려했던 시기로, 금 · 은실 혹은 색실을 이용하여 꽃무늬나 다양한 문양들을 자수로 놓아 장식하였다. 특히 남성용 베스트나 양산, 스톤머커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이 중에서도 금실로 놓은 자수는 귀족들 사이에서 고급품으로 여겨 질 만큼 귀중하였다. <그림 54>의 작품 X은 로코코 시대에 남성 복식의 금색 자수를 응용한 디자인으로, 어두운 레드 컬러 바탕에 골드 컬러를 사용하여 자수 느낌의 내었다. 자수 디자인의 배치는 중앙 집중형으로 조끼를 형상화 했을 때, 단추를 여미는 쪽으로 모이게 하였고 곳곳에 붙인 인조 보석의 위치는 베스트의 단추를 생각하여 함께 배치하였다. 또한, 구불구불한 S자형의 물결 곡선의 형태는 남성복의 베스트뿐만 아니라 여성복의 허리 라인이나 코르셋에도 많이 찾아볼 수 있어 로코코 시대의 자수 장식을 연상되도록 디자인 하였다. 무늬의 형태는 정확한 좌 · 우 대칭이 아닌 비대칭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로코코 시대의 장식 면에 찾아볼 수 있는 비대칭 구도를 활용한 형태로, 자세히 보면 모양 하나하나가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구도가 뒤틀어져 보이지 않는 안정감이 느껴지는 로코코 장식의 특징을 담고 있는 작품이다.

표현 기법은 핸드페인팅을 이용하여 자수 문양을 그려 넣었고, 장식이 많이 없는 것을 감안하여 필감이 많이 섞인 글리터젤을 이용하여 화려함을 강조하였다. 약간의 스톤과 광택감이 뛰어난 젤 탑코트를 사용하여 마무리 하였다.



<그림 54> 작품 X

11) 작품 XI

- 모티브 : 로코코 시대의 구두, 레이스 장식
- 색 상 : Purple, Pink, White, Light pink
- 기 법 : 익스텐션, 핸드페인팅
- 재 료 : 아크릴릭 시스템, 자개, 인조보석, 아크릴릭 물감
- 해 설

<그림 55>의 작품 XI은 로코코 시대의 구두에서 모티브를 가져온 것으로 로코코 시대의 구두는 현재 하이힐의 모습과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앞코가 뾰족하고 긴 것이 특징이다. 상류층의 귀부인들은 여러 가지의 천이나 가죽으로 신발을 제작하였고, 온갖 장식품들을 부착하여 예술품처럼 만들었다. 이러한 특징들을 참고하여 본 작품은 구두의 모습을 형상화하기 위하여 끝이 뾰족한 형태의 포인트형 웨입으로 조형하였다.

웨입을 조형하는데 있어서 사용한 소재는 로코코 시대의 실내 장식의 마감재로 많이 사용되었던 조개껍질에 착안하여 가루로 되어 있는 자개 글리터를 이용하였고, 투명한 아크릴릭 파우더와 함께 믹싱하여 손톱의 끝에서부터 연장을 하며 모양을 만들었다.

또한, 파스텔 톤의 퍼플과 핑크 색상을 선정하여 여성스럽고 아기자기한 로코코 시대의 색감을 강조하였다. 연장한 웨입 위에 레이스 무늬를 그려 넣어 더욱 여성미를 주었으며, 레이스 표현은 장미 꽃잎 한 장의 외곽선과 식물의 줄기나 잎사귀, 넝쿨을 연상하게 하는 곡선처리로 표현하였다.

주로 사용한 표현 기법은 익스텐션 기법과 핸드페인팅을 사용하였고, 현재 트렌드인 원 포인트 네일아트로 한 개의 손톱에만 포인트 장식을 해줌으로써 평면적인 아트이지만 디자인의 주목성을 높였다. 포인트 장식으로는 진주색의 원형 참 스톤과 장미 파츠를 붙여 화려함을 강조하였으며 자개 글리터의 빛깔을 살리기 위해서 젤탑코트를 발라 마무리하였다.



<그림 55> 작품 XI

12) 작품 XII

- 모티브 : 에스파놀레트 장식
- 색 상 : White, Paleturquoise
- 기 법 : 엠보 기법, 3D 기법
- 재 료 : 아크릴릭 시스템, 아크릴릭 물감
- 해 설

<그림 56>의 작품 XII는 로코코 왕실의 전속 에베니스트인 샤를 크레성의 작품 특징인 브론즈 장식을 모티브로 한 작품이다. 그의 여러 가구 작품 중 서랍장 양쪽 모서리에 붙어있는 여인 조각상은 우아하고 섬세함을 가지고 있다. 크레성의 장식들은 전체적인 가구의 윤곽선을 매만지는 역할과 장식의 역할 두 가지를 동시에 하고 있으며 물결치듯 덮여 있는 돌출 장식과 함께 어우러져 있다. 본 작품에서는 에스파놀레트를 표현하기 위해서 반 입체적인 형태로 손톱 위에 조형하였다. 한껏 치장한 상류층 귀부인들의 모습을 바탕으로 만들었으며, 장식의 머리 부분은 팁의 바닥보다 떠 있으며 아래 부분은 팁 위에 붙어 있는 형태로 에스파놀레트를 그대로 형상화하기 위하여 엠보 기법과 3D 기법을 함께 사용하여 표현하였다. 로코코 시대의 여인들의 모습을 더 강조하기 위하여 당시의 여인들의 헤어스타일과 패션을 그대로 연출하였다. 쉐이 큰 모자 혹은 화려한 머리장식, 부풀린 드레스와 과한 셔링, 리본 장식 등을 재현하였다.

재료는 아크릴릭 파우더를 사용하여 조각하였고, 받쳐주는 뼈대를 만들기 위해서 약간의 철사와 호일을 사용하였다. 에스파놀레트 모양과 흡사하게 끝이 길고 뾰족해지는 형태를 웨입으로 표현하였고, 좀 더 차가운 조각의 재질감을 연출하기 위하여 청동 느낌의 색감과 하이라이트를 주었다. 약간의 스크래치와 의도적으로 광택 마무리를 하지 않아 조각상의 분위기를 더욱 고풍스럽게 하였다.



<그림 56> 작품 XII

13) 작품 XIII

- 모티브 : 로코코식 장식 촛대 ‘아플리크(applique)’
- 색 상 : Silver, Light gray, Light blue
- 기 법 : 마블, 엠보 기법
- 재 료 : 젤팔리쉬, 아크릴릭 재료, 아크릴릭 물감, 인조보석
- 해 설

로코코 시대는 실내장식이 매우 발달한 시대로 실내의 벽면뿐만 아니라 벽면에 달리는 벽면 장식, 실내 공간 안에 있는 모든 공예품까지도 어울리도록 연출하였다. <그림 57>의 작품 XIII은 실내 장식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 같은 생활용품들 중 벽난로 주변 장식으로 많이 쓰이던 촛대를 모티브로 한 작품이다. 벽에 고정시켜 놓는 촛대를 ‘아플리크’라 명칭하는데, 로코코 시대에 사용되었던 아플리크의 형태 일부분을 차용하였다.

아플리크 형태는 서로 엉키면서 자라는 식물의 줄기를 모티브로 한 장식품으로 로코코 실내장식의 특징인 규칙 없이 물결치는 듯한 곡선을 그대로 잘 살린 실내 장식이다. 벽난로 주변에 거울 및 대리석을 감싸던 몰딩과 같은 디테일로 촛대의 아래 부분을 셰입으로 응용하였다. 차가운 대리석 느낌과 함께 융합된 디자인으로, 촛대 주변의 장식적 요소들도 간접적으로 함께 표현하였다. 거울의 느낌은 깨끗하고 빛이 반사될 수 있는 유리구슬 형태의 파츠로 장식하였다. 대리석의 표현은 젤팔리쉬로 마블링하여 자연스럽게 흐르는 성질과 번짐의 효과를 내었고, 촛대의 형태는 아크릴릭 파우더를 사용해 약간의 익스텐션으로 감싸서 내려오는 느낌을 주었다. 주로 사용된 표현 기법은 엠보 기법으로 디테일의 입체감을 살렸다. 전체적인 색감은 뿌연 하늘빛에 메탈 실버 컬러가 함께 어우러진 느낌으로, 차갑지만 포근한 분위기를 풍긴다. 다채로운 광채가 돋보이는 오팔 컬러의 인조 보석과 구슬파츠와 어울릴 수 있는 원형 참 스톤을 사용하여 디자인에 화려함을 강조하였다.



<그림 57> 작품 XII

14) 작품 XV

- 모티브 : 로코코 마이센 자기
- 색 상 : White, Gold, Dark green, Brown, Light blue
- 기 법 : 핸드페인팅
- 재 료 : 아크릴릭 물감
- 해 설

로코코 시대에는 중국이나 일본에서 수입해 온 동양풍의 도자기에 열광하였다. 이러한 현상에 힘입어 유럽 자기 공예품의 발전을 이룬 대표적인 곳이 세브르 도자기와 마이센 자기이다. <그림 58>의 작품 XV는 이 중 마이센 자기를 모티브로 한 것으로, 중앙에 풍경화나 인물화 등을 그려 넣는 것이 특징이다. 도자기의 볼록한 곡선형을 살리기 위해서 완만한 평면 톱이 아닌 C컬의 롱커브톱을 사용하였고, 각개의 톱이 모여서 하나의 디자인이 되도록 연출하였다. 배경색은 백색 자기를 연상케 하는 화이트 컬러로 선정하였고, 도자기의 코팅된 질감이나 매끈한 광택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일반 폴리쉬가 아닌 젤 컬러를 이용하여 채색하였다. 톱 5개를 한 면이라 생각하고 중앙 위치에 액자식으로 디자인을 구성하였고, 로코코 시대의 귀족들의 쾌락과 전원을 동경하는 마음을 담아 풍경화를 주제로 하였다. 풍경화의 색감은 로코코식 회화인 페트갈랑트 화풍의 포근하고 안락한 색채에 착안하였다. 마이센 자기의 또 다른 특징인 금장 테두리 장식도 함께 연출하였다. 메인 디자인 주변이나 형태를 마감하는 테두리 모두에 골드 컬러로 장식하였고, 테두리에도 레이스 문양을 그려 넣어 로코코의 특징을 표현하였다.

세필화가 돋보이는 마이센 자기를 표현하기 위해 주로 핸드페인팅 기법으로 디자인 하였고, 깔끔하고 정갈한 도자기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입체적인 장식요소는 배제하였다. 매끈한 자기의 표면을 더욱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마무리는 젤탑코트를 사용하였다.



<그림 58> 작품 XV

15) 작품 XV

- 모티브 : 로코코 주얼리
- 색 상 : Navy
- 기 법 : 라인스톤
- 재 료 : 유색 인조보석, 참 스톤, U.V 젤
- 해 설

로코코의 장식 예술은 주얼리에도 영향을 미쳐 자유분방한 곡선이 애용되었다. 꽃, 나비, 리본 등의 디자인이 유행하였는데 수백 개의 유색 보석이 장식되어있는 부케형태가 사랑을 받았다. <그림 59>의 작품 XV는 드레스나 머리 장식으로 많이 사용되었던 부케 주얼리를 모티브로 한 작품으로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유색 보석을 이용하여 꽃과 줄기 및 나뭇잎으로 표현하였다. 로코코 시대의 이전에는 무색 투명한 원석을 그대로 디자인에 사용하였는데 이 시대에는 다양한 유백색을 입힌 형태가 많이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착안하여 투명한 스톤보다는 유색의 스톤으로만 디자인하였다. 이 디자인의 배경색은 유색 보석의 색감이 잘 돋보일 수 있도록 어두운 계열의 네이비 컬러를 사용하여 채색하였다. 꽃 디자인은 원형, 사각, 물방울형, 나뭇잎형 등 인조 보석을 모아 붙여 표현하였고, 줄기 표현은 원형 참 스톤을 이어 붙였다. 주로 사용한 표현 기법은 라인스톤으로, 클리어젤을 이용하여 스톤을 접착하였다. 스톤 접착 시, 글루 종류는 마르면서 하얗게 굳은 자국이 생기기 쉽고 위치를 변경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으나 U.V 젤을 사용하면 접착 시 램프에 들어가기 전까지 위치를 자유롭게 옮길 수 있고 깔끔하다는 장점이 있다. 디자인의 구도는 프리엣지 부분에 집중된 형태로 로코코 시대의 자유스러움을 담아 패턴식이 아닌 여러 가지의 디자인으로 배치하였고, 각각의 디자인을 따로 보거나 혹은 같이 보아도 부케 형태를 잃지 않는 균형감을 가지고 있다. 마무리는 젤 탑코트로 마감하였다.



<그림 59> 작품 XV

16) 작품 XVI

·모티브 : 지아르디네티 (giardinetti)

·색 상 : Black

·기 법 : 라인스톤

·재 료 : 인조보석, 파츠

·해 설

로코코 주얼리를 모티브로 한 <그림 60>의 작품 XVI은 꽃을 형상화한 디자인의 형태를 응용하였다. 부케 주얼리형과 함께 18세기 중반에 인기를 끌었던 ‘지아르디네티’라는 주얼리 형태에 착안하여 디자인하였으며, 꽃 바구니 느낌이 들도록 다양한 크기의 인조 보석을 겹쳐 붙여 표현하였다. 특히, 다이아몬드가 각광받던 로코코의 시대상을 반영하여 빛깔이 뛰어난 스와로브스키 스톤을 사용하여 지아르디네티의 느낌을 재현하였다. 마리 앙투아네트도 매우 좋아하였던 보석인 다이아몬드는 18세기 초 보석의 컷팅 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광채가 돋보이는 브릴리언트 컷이 장점이다. 작품에 사용된 스톤도 다이아몬드와 비슷하게 빛깔이 돋보이는 V컷의 뽀족이 형태를 사용하였다. 디자인의 구성은 귀걸이, 목걸이, 반지 등의 장신구 모습을 간접적으로 표현하였고, 스톤의 높낮이의 차이로 입체적인 볼륨감을 주었다.

배경색은 인조 보석이 부각되어 보일 수 있도록 심플한 블랙 컬러로 채색하였고, 단색 스톤만을 이용하여 고급스러움을 강조하였다. 약간 보이는 골드 컬러는 보석의 광채를 향상시키는 골드나 실버로 덧댄 클로즈드 백 스톤의 효과로 빛깔이 더욱 돋보여 화려한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이미 모양이 잡혀있는 파츠도 활용하여 디자인의 단조로움을 피하였으며, 마무리 탑젤은 스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발라 마감하였다.



<그림 60> 작품 XVI

17) 작품 XVII

- 모티브 : 지랑돌 (girandole)
- 색 상 : Black, Gold
- 기 법 : 라인스톤, 데칼
- 재 료 : 인조보석, 파츠, 데칼, 땡글
- 해 설

<그림 61>의 작품 XVII은 프랑스어로 샹들리에라는 뜻의 ‘지랑돌’이라는 주얼리 형태에서 모티브를 따온 작품으로, 매듭 장식을 중심으로 움직임에 따라 흔들리는 모양을 가진 주얼리를 응용한 디자인이다. 지랑돌의 형태는 미세한 움직임에도 달랑거리며 보석의 빛깔을 가장 효과적으로 돋보이게 한다. 지랑돌은 네일아트 장식 재료 중의 땡글의 형태와 유사하여, 땡글을 사용해 지랑돌 주얼리의 느낌을 재현하였다.

전체적인 웨입은 곡선미를 강조한 오발형으로 땡글 쪽으로 자연스럽게 시선이 모이도록 만들었다. 배경색은 차분한 느낌의 블랙 컬러로 채색하여 인조 보석의 빛깔도 돋보이게 하며, 골드 문양과도 조화를 이루어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작품에 사용된 인조 보석은 한 가지 컬러나 종류에 치우치지 않고, 로코코 시대에 유행하였던 다이아몬드, 진주, 유색 보석류 등을 다양하게 매치시켜 장식하였다. 부착한 스톤 및 파츠가 18세기 주얼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클로드 백 기법으로 이루어져 색감과 광채를 더욱 아름답게 향상시켰다. 또한, 로코코 스타일에서 빠질 수 없는 C자형 S자형으로 이루어진 곡선 문양을 함께 배치하여 구성에 화려함을 더했고, 초상화 조각의 파츠와 장미 모양의 조각도 덧붙여 로코코 시대의 장식적 요소를 표현하였다. 주얼리의 형태를 표현하기에 가장 적합한 라인스톤기법을 주로 사용하였고, 문양은 데칼을 이용하였다. 인조 보석류에는 다른 코팅처리를 하지 않았고, 배경 컬러부분에만 젤 탑코트로 마무리하였다.



<그림 61> 작품 XVII

V. 결 론

네일아트는 손톱 위에 표현되는 예술 영역으로, 개성을 표출하는 수단이자 토털 미용에서 빠질 수 없는 한 분야로 그 입지를 튼튼히 하고 있다. 특권층만 누리는 것이 아닌 대중들에게 친숙한 영역으로 다가오면서, 고객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기술력과 예술적인 감각의 디자인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예술적 요소가 다양하였던 로코코 시대의 시대적 예술양식을 접목한 네일 디자인을 연구하여, 정형화된 적용범위를 뛰어넘어 네일아트 디자인의 영역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특히, 로코코 양식은 장식이 화려하고 여성스러우며 섬세함과 정교함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네일아트 디자인으로서의 조형적 예술 가치를 높일 수 있고, 작품을 통하여 대중성이 강한 살롱형 네일아트와 예술성이 강한 작품형 네일아트에 모두 적용할 수 있는 모티브를 네일 디자인으로 표현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연구 방법으로는 로코코 양식의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난 회화, 실내장식, 문양, 오브제, 주얼리의 5가지 분야로 분류하여 국내·외 전문서적, 선행논문, 신문기사, 인터넷 자료를 바탕으로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였으며, 로코코 양식에서 모티브를 얻어 다양한 네일아트 기법과 재료를 사용하여 총 17작품의 네일 디자인 작품을 제작하였다.

작품 I 은 로코코 양식의 회화 작품에서 페트갈랑트 화풍을 응용한 작품으로 이 시대의 대표적 화가인 와토의 그림을 통하여 디자인의 주제, 색감, 그림체 등을 접목하여 핸드페인팅, 엠보 기법, 3D기법을 사용해서 표현하였다.

작품 II 는 로코코 양식의 실내장식에서 실내 벽면을 모티브로 한 작품으로

실내벽면에 들어가는 벽면 장식까지 포함하여 C자형과 S자형의 몰딩 등을 접목한 디자인으로 마블, 엠보 기법을 사용해서 표현하였다.

작품 III과 IV는 로코코의 실내장식 중 가구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마케트리 가공방식을 응용한 작품으로 로코코 특유의 색감과 마케트리의 가장 큰 특징인 얇게 덧입히는 기법과 얇게 조각낸 문양을 끼워 맞추는 기법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작품으로 디자인하였으며 핸드페인팅 기법을 사용하여 표현하였다.

작품 V는 로코코의 실내장식 중 의자를 모티브로 하여 곡선의 융합성을 보여주는 캐브리올 다리를 응용하여 디자인하였다. 소용돌이 형태의 의자의 다리를 형상화하였고 엠보 기법을 사용하여 표현하였다.

작품 VI과 VII은 로코코의 문양 중 베랑이 디자인 한 대표 문양을 응용한 작품으로 각각 다른 문양을 접목하였다. 문양을 그대로 재현하기 위하여 프 로트랜스 기법을 사용하였고, 인조보석 및 데칼을 이용하여 장식하였다.

작품 VIII은 로코코 시대의 직물 문양을 응용한 작품으로 주 소재였던 꽃과 나뭇잎을 이용하여 디자인하였고, 데칼과 인조보석 및 파츠로 장식하여 표현하였다.

작품 IX는 마리 앙투아네트의 직물 문양을 응용한 작품으로 비단의 색감 및 문양을 핸드페인팅 기법으로 표현하였다.

작품 X은 로코코 시대의 자수를 모티브로 한 작품으로 특히 남성 복식에 사용된 금실로 놓은 자수 디자인을 응용하였다. 비대칭 곡선을 사용하여 핸드페인팅 기법과 인조 보석으로 표현하였다.

작품 XI은 로코코 시대의 구두의 모습을 형상화하여 네일아트 스텀업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로코코 시대에 마감재로 많이 사용했던 자개를 이용하여 익스텐션 기법으로 표현하였고 핸드페인팅으로 레이스 무늬를 디자인하였다.

작품 XII는 로코코식 가구 모서리에 붙어 있는 오브제를 모티브로 한 작품으로 샤를 크레성의 브론즈 장식인 에스파놀레트를 응용하였다. 아크릴릭

과우더를 사용하여 엠보 기법, 3D기법을 통해 입체감 있는 오브제의 특징을 살려 표현하였다.

작품 XIII은 벽면 장식에 쓰였던 오브제를 모티브로 한 작품으로 벽에 고정시켜 놓는 촛대인 아플리크의 일부분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벽면에 사용된 대리석 느낌을 표현하였으며 규칙 없이 구불구불 내려오는 곡선을 엠보기법으로 조형하였다.

작품 XIV는 로코코 시대의 마이센 자기를 응용한 작품이다. 핸드페인팅 기법을 사용하여 마이센 자기의 가장 큰 특징인 도자기 중앙의 풍경화 그림과 금장 장식으로 표현하였다.

작품 XV는 로코코 주얼리 중 부케 형태를 응용한 작품으로, 각기 다른 모양과 크기의 유색 인조보석을 사용하여 꽃, 줄기, 나뭇잎을 표현하였다.

작품 XVI은 로코코 주얼리의 디자인 형태 중 지아르디네띠를 모티브로 한 작품으로 꽃바구니 형태를 연상케 디자인하였다. 로코코 시대는 다이아몬드가 각광받던 시대로, 광채가 화려한 V형태의 뾰족한 스와로브스키 스톤을 사용하여 라인스톤 기법으로 표현하였다.

작품 XVII은 로코코 주얼리의 형태 중 지랑돌을 모티브로 하여 매듭 장식의 흔들리는 모양을 응용한 작품이다. 지랑돌과 비슷한 형태의 네일 재료인 땡글을 사용하였고 클로즈드 백 기법으로 이루어진 네일 파츠, 인조 보석을 사용하여 광채가 돋보이도록 표현하였다. 또한, 곡선 형태의 데칼을 이용하여 로코코의 특징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로코코 양식이 네일 디자인 발상에 다양한 모티브를 제공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네일 아트 디자인으로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로코코 양식이 네일아트와 융합하여 하나의 조형 예술로써 충분한 가치가 있고, 네일 디자인에 적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작품에 사용된 네일아트의 재료와 기법이 로코코를 표현함에 있어 색채, 질감, 형태 등에서 다양한 방향성을 제시하였으며 네일 디자인의 표현

영역을 확장하는 계기를 제공하게 되었다. 앞으로 본 연구가 네일 아티스트 및 네일 관련 종사자들에게 시대적 예술양식을 응용하여 네일 아트 디자인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되기를 기대하며, 로코코 양식을 응용한 네일아트 디자인의 사례를 제공하여 네일 디자인의 학술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생각한다.

로코코 시대의 예술양식을 연구하면서 더 많은 영역이 있음을 느낄 수 있었고, 동시대에 나타난 영국, 이탈리아 등 다른 국가의 로코코 양식을 함께 연구할 수 없었던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향후 네일아트 분야가 앞으로 더욱 발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했던 영역의 새로운 디자인과 표현력을 발전시킨 창의적인 네일아트 디자인 후속 논문이 끊임없이 나오기를 기대하며 연구과제로 이어 가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국내문헌

- 강경화 (2003). NAILCARE & DESIGN. 서울: 신정.
- 공혜원 (2012). 서양 가구의 역사. 경기도: 살림출판사.
- 곽은주 (2011). *불화 속 연화문양을 응용한 네일 디자인 연구*. 석사학위논문, 남부대학교대학원.
- 김경옥 (1996). 서양 복식사. 서울: 양서각.
- 김기현 (2013). *기모노 문양을 활용한 네일 디자인 연구*.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 김동연, 김효영, 노지운, 이소녕, 임희아, 장형화 (2007). Beauty Stylist Nail art book. 서울: 삼성복스.
- 김미원 외 13명 (2006). The World of Nail Technology. 서울: 성화.
- 김미원 (2011). Nail Study-Nail Artist Technology Text. 서울: (사)한국네일지식서비스협회.
- 김미원 (2012). Nail Exam-Study&Exercise. 서울: (사)한국네일지식서비스협회.
- 김석희 (2008). 번역가의 서재. 서울: 한길사.
- 김신희 (2011). *한국의 민화를 모티브로 한 네일아트 연구*.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 김시아 (2010). *로코코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의상 연구: 「마리 앙투아네트」와 「공작부인」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 김영숙 (2007). 루브르와 오르세 미술의 명화산책. 서울: 마로니에북스.
- 막스 폰 뷔 저, 천미수 역 (2000). 패션의 역사. 서울: 한길아트.

- 바이잉 저, 한혜성 역 (2008). 지도로 보는 세계 미술사. 서울: 시그마북스.
- 박우찬 (2004). 한권으로 읽는 청소년 서양 미술사. 서울: 이룸.
- 박제 (2011). 오후 네 시의 루브르. 서울: 이숲.
- 백영자, 유효순 (2003). 서양의 복식문화. 서울: 경춘사.
- 베니야마 저, 서상원 역 (2006). 유럽에 빠지는 즐거운 유혹1-신화와 역사 편. 서울: 스타북스.
- 벨라포마 코리아.はじめに. Japan: Bella Forma.
- 블랑쉬 페인 저, 이종남 역 (1988). 복식의 역사-고대 이집트에서 20세기 까지. 서울: 도서출판 까치.
- 신화영 (2006). 로코코 양식을 응용한 직물 디자인 연구: 파티 구두를 제작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안토니아 프레이 저, 정영문 역 (2006). 마리 앙투아네트. 서울: 현대문학.
- 오광수 (1996). 이야기 서양미술 서양미술이야기. 서울: 정우사.
- 오타나베 키호 저, 이은주 역 (2005). 네일 페디 큐어. 서울: 넥서스BOOKS.
- 오혜경 (1992). 실내장식의 변천사. 서울: 국제.
- 원종욱 (2009). 그림에서 보석을 읽다. 서울: 이다미디어.
- 윤선자 (2006). 이야기 프랑스사. 서울: 청하출판사.
- 윤현주 (2008). 젊음을 위한 교양 지식 갤러리. 서울: 스타북스.
- 이경민 (2010). 나의 달콤한 메이크업. 서울: 그책.
- 이나경 (2013). 로코코 시대 헤어스타일의 조형적 특성을 응용한 현대 업스타일 디자인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 이상봉 (2004). 전통문양을 이용한 네일아트 디자인 연구. 대구: 미래대학 논문집.
- 이연숙 (1989). 서양의 실내공간과 가구의 역사. 서울: 경춘사.
- 이연숙 (1998). 실내디자인양식사. 연세대학교출판부.
- 이영순, 한영숙, 이은실 (2000). 네일 관리학. 서울: 고문사.

- 이은경 (2004). 네일아트. 서울: 광문각.
- 이지은 (2006). 귀족의 은밀한 사생활. 서울: 지안.
- 이지은 (2011). 부르주아의 유쾌한 사생활. 서울: 지안출판사.
- 이지현 (2006). 로코코 시대의 장식요소를 응용한 의상디자인. 석사학위논문, 한경대학교대학원.
- 자크 바전 저, 이희재 역 (2006). 새벽에서 황혼까지 1500~2000 1. 서울: 민음사.
- 장희진, 이기혜, 이소정, 김진, 김형숙 (2011). 네일 아트 디자인. 서울: 훈민사.
- 제르맹 바쟁 저, 김미정 역 (1998). 바로크와 로코코. 서울: 시공사.
- 정홍숙 (1997). 서양복식문화사. 서울: 교문사.
- 조슬아, 김수현, 김유정, 이영미 (2013). 네일아트 美학. 서울: 구민사.
- 조정문 (2006). 로코코시대 여성복식을 응용한 의상디자인연구: 디테일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조진애, 손희정, 이혜진 (2001). 서양 복식의 역사. 서울: 경춘사.
- 클레어 필립스 저, 김숙 역 (2000). 장신구의 역사. 서울: 시공사.
- 홍지연 (2006). 시간이 만든 빛의 유혹-엔틱 주얼리. 서울: 수막새.
- 한순자, 서옥경, 이민주 (2001). 서양복식문화사. 서울: 예학사.
- 한원영 (2010). 로코코 시대 인물화에 나타난 메이크업 특성과 색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산업대학원.
- 한지선 (2012). 18세기 로코코 시대의 여성 미용문화 분석을 통한 미용작품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결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외문헌

- Francois Boucher (1987). 20,000 years of fashion. New york: Harry

N.Abrams Inc. p. 297.

Jane Ashelford (1996), THE ART OF DRESS. The national trust.
p. 128, p. 136.

Dorling Kindersley (2012). FASHION—THE ULTIMATE BOOK OF
COSTUME AND STYLE. DK. p. 142.

정기간행물

봉숭아 손톱 작품집 Vol 6. p. 111.

봉숭아 손톱 작품집 Vol 7. p. 36.

봉숭아 손톱 작품집 Vol 9. p. 63, p. 125.

NAILMAX COLLECTIONS Vol 12. p. 51.

NAIL UP KOREA Vol.5 2009년 9월호. p.89.

KOREA SALON TREND I. (사)한국네일지식서비스협회. p. 45.

KOREA SALON TREND II. (사)한국네일지식서비스협회. p. 60, p. 105.

인터넷 자료

매일신문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w.php?news_id=60983&yy=2011, 검색일자: 2013.06.13.

뷰티누리 <http://www.beautynury.com/news/view.asp?idx=50890&whr=&keyword=§ion=people&searchcategory=&mode=main&boundary=part&ptype=simle&page=1>, 검색일자: 2013.06.13.

네이버 <http://cafe.naver.com/2sonnailart/4524>, 검색일자: 2013.11.12.

ABSTRACT

A Study on Nail Art Design by the Application of the Artistic Styles of the Rococo Period

Cho, Han Sol

Department of The Convergence Design and Art

Major in Make-up & Special Make-up

The Graduate School of Sungshin University

Unlike nail care, nail art places a strong emphasis on decorative elements to adorn the nail surface beautiful. In the midst of the flow of the times for individuals to express their individuality freely, nail art is establishing its definite status as one of the core areas in the beauty industry. Today design creation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continued to be considered important according to the introduction of various nail materials and the new trends spread via mass media as well as the remarkable advancement of the nail art business, but nail artists find them insufficient.

In that vein, there is a need for research on nail art design by incorporating and applying the artistic styles of the periods when

design motifs were diverse.

This study thus set out to investigate the artistic styles of Rococo period, which witnessed the culmination of sophisticated and splendid decorative elements, and incorporate it in a contemporary fashion, thus proposing a range of nail design works. Splendor and sophistication reached the apex during the Rococo period in the 18th century, which is represented by the aesthetics of femininity and curved lines. Given that most previous studies on the Rococo styles focused on clothing, hairdo, and make-up in the domain of beauty research and that there is a very small number of researches that incorporated nail art, the study aimed to propose nail art design in the Rococo style, which would be applied in various areas including salon works and competition works and integrated into technological exchanges and modern flows, make a 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 of nail art design, and provide basic data for creative conception and expressive methods.

The findings of research on nail art design by the application of the Rococo style were as follows:

Nail Art Design I applied the *fate galante* style of paintings in the Rococo style and used the hand painting, embo technique and 3D technique for expression.

Nail Art Design II found its motif in the internal wall surface in the Rococo style interior decoration and used the marble and embo technique for expression.

Nail Art Designs III and IV applied the marquetry processing technique commonly found in furniture in the Rococo interior

decorations and usually used the hand painting technique for expression.

Nail Art Design V found its motif in the cabriole leg of chair in the Rococo interior decorations and used the embo technique for expression.

Nail Art Designs VI and VII applied the Berain pattern of the Rococo patterns and used the pro-trans, artificial jewels, and decal for adornment.

Nail Art Design VIII found its motif in flowers, leaves, and stems of the textile patterns during the Rococo period and used decal, artificial jewels, and parts for adornment and expression.

Nail Art Design IX applied the textile pattern of Marie Antoinette and used the hand painting technique for expression.

Nail Art Design X found its motif in the embroidery of the Rococo period and used the hand painting technique and artificial jewels for expression.

Nail Art Design XI embodied the tie-up, pointed-toe shoe with a pointed front and back of the Rococo period and used the extension and hand painting technique for expression.

Nail Art Design XII applied the espagnolette, the bronze decoration of Charles Cressent, and used the embo and 3D technique for expression.

Nail Art Design XIII embodied a part of Applique, a candlestick fixed on the wall, and used the embo technique for formative purposes.

Nail Art Design XIV applied the Meissen porcelain of Rococo period and used the hand painting technique for expression.

Nail Art Design XV applied the bouquet-style Rococo jewel form. Nail Art Design XVI found its motif in Giardinetti, a design form of Rococo jewelry. Nail Art Design XVII found its motif in Girandole, a form of Rococo jewelry. Those three nail art designs used the rhinestone technique for expression.

The study found that the characteristics of Rococo style could be incorporated into nail art design as motifs and investigated and developed nail art designs that could be applied to the salon-style nail art of high popularity and the work-style nail art of strong artistry.